

대통령, 오늘부터 청서 업무… 3년7개월 만



다시 청와대로

❶ 용산서 옮겨온 ‘봉황기’

대통령실 공식명칭 ‘청와대’ 바꾸고 업무표장 역시 과거 로고 다시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에 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을 끝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공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용산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도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청와대

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상징으로, 대통령이 ‘있는 곳(주 집무실)’에 상시 게양된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변경된다. 업무표장(로고)도 과거 청와대로 돌아간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내란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대통령실’과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집무실 이전을 연내 마무리한 것도, 올해까지 ‘국가 정상화’에 매진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 업무를 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여민관에 집무실을 뒀다. 이는 본관과 여민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구중궁궐’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청와대의 단점을 상쇄하려는 취지다.

/서예진 기자 syj@

韓,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참전
산업협력 패키지 ‘G2G 카드’ 꺼내

산업부, 국방 비롯 에너지 분야 등 협력 패키지 구성, 캐나다에 제안
경쟁국 독일, 정부차원 패키지 대응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 수주전을 놓고 정부 간 협력(G2G)을 축으로 하는 수출산업협력 패키지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방산 선진국의 ‘산업협력 패키지’ 카드에 밀려 몇차례 고배를 마셨는데 향후 정부의 관련 지원을 얻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G2G 협력안(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패키지)을 마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한화오션

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해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협력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구성해 캐나다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의 수출산업협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 한국방위산업학회지에 실은 ‘방산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정부지원 한계 극복방안 고찰’을 통해 정부차원의 산업협력 지원이 제한적이고 성능·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방산 수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산업협력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고, 정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에 그쳐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주전 결과도 ‘패키지 경쟁’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달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은 스웨덴과 최종 단계까지 경쟁했지만 탈락했다.

폴란드 조선·해군 전력 전문 포털 스토티니아 포털은 지난 11일 평가의 무게 중심이 잠수함 성능보다 경제적 의무와 산업 패키지(오프셋)에 있었다고 짚었다. 투자·협력·폴란드산 구매·산업 참여 등 경제·산업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화오션과 H D현대중공업은 2차 후보에도 들지 못했다.

CPSP 선점을 위해 독일은 이미 정부차원의 패키지 대응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독일 해군에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기로 했고, 핵심 광물·액화천연가스(LNG)·수소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핵심 광물 협력 공동의향서도 체결했다. 지난달 방한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독일 폭스바겐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설립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측에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도 산업 패키지가 협상력을 좌우한 사례가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AS21 ‘레드백’ 장갑차 수주 이후 본계약 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되자 호주산 철광석 활용과 대규모 구매 연계를 제안해 협상력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이민자 비중 10%p 증가하면
지역서비스 물가 0.6% 하락

산업연구원, 이민자유입 물가 영향
저·중숙련 내국인 임금 영향 없어
교육서비스·주택임차료 하락 효과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서비스 물가를 안정시키고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이민자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3년 국내 39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비교역재(서비스) 가격 수준은 평균 0.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민자 비중 증가가 저·중숙련 내국인의 임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노동공급 ▲수요구성 ▲수요규모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물가 하락 효과는 저숙련 노동 공급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즉 ‘노동공급 경로’를 통해 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품목별로 보면 공공서비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등 이민자 종사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서 가격 하락 효과가 유의하게 관측됐다. 이는 인력난이 심한 비교역재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자유입이 비용 압력을 완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는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에서의 미 있는 가격 하락이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민자의 이질적 소비 성향에 따라 교육 관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민자 유입이 증가할수록 학원 수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는 설명이다.

주택임차료 역시 교육 수요 둔화로 인한 교육 여메니티(쾌적성) 약화가 주택 수요 증가 효과를 일부 상쇄하면서, 임차료 상승 압력을 낮춘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일부 비가공 식품품 등 교역재 가격의 소폭 상승은 단기 공급 조정이 어려운 품목에서 이민자유입에 따른 총수요 확대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내수침체·산업재해 등 풍파… ‘K-콘텐츠’ 新성장동력 확인

식품업계 결산

원부자재·인건비 상승 등 부담 커져
잇단 산업재해로 소비자 신뢰 ‘흔들’
K-푸드 인기… 콘텐츠 결합 시너지

2025년 식품업계는 내수 침체와 정치 불확실성, 미국발 통상변수, 잇따른 산업 재해까지 겹치며 거센 풍파에 직면했다. 동시에 K-푸드 열풍과 콘텐츠 협업 효과로 해외 시장에서는 성장 동력을 확인하며 위기와 기회가 교차한 한 해로 기록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국내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리스크가 동시에 노출되며 식품업계가 전환의 분기점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치 불확실성 속 가격 인상 ‘릴레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정치 혼란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식품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정국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환율 변동성과 원부자재·인건비 부담이 누적되자 업계는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섰다.

농심은 신라면·새우깡 등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7.2% 인상했고, 오뚜기와 팔도도 라면·면류 가격을 조정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과 커피에 이어 요플레 등 발효유 출고가를 인상했으며, hy 역시 2년 7개월 만에 아쿠르트 라이트 가격을 올렸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파리바게뜨, 컴포즈커피 등도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자 사회적 반발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취임 직후 열린 긴급 경제 점검 회의에서 라면 가격을 직접 언급하며 체감 물가 안정을 주문했다.

◆ 미국 상호관세 변수… K-푸드 ‘긴장’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았다. 미국은 2025년 4월 상호관세 정책을 구체화하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율을 책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 식품은 상대적으



식품업계는 올해 초 주요 제품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3월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과자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로 단가가 낮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미국 내 K-푸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된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2024년 기준 K-푸드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억9000만 달러로, 미국은 최대 수출국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식품 기업들은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현지 생산 기반이 제한적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7월 말 미국이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면서 업계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일부 덜게 됐다.

◆ 잇따른 사망 사고… ‘안전’이 최대 리스크로

올해 식품업계의 가장 뼈아픈 이슈는 산업재해였다.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새벽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SPC는 과거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됐던 만큼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해당 공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을 강하게 질책했고, SPC그룹은 이후 공장 운영과 근무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가동 구조를 조정하고, 장시간 근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미국 타임스퀘어 디지털 옥외광고에서 농심 신라면과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협업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농심

7월에는 인천 미추홀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며 과로사 의혹도 제기됐다. 유족 측은 사망 전 장시간 근무가 이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근무 기록과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잇따른 산업재해 논란은 식품업계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콘텐츠가 끌고, 글로벌 K-푸드가 받쳤다

어두운 이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K-푸드 인기가 이어지며 실적을 떠받쳤고, 콘텐츠와 결합한 마케팅 효과도 두드러졌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이후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누적 시청 수 3억 회를 넘어섰다.

작품 속 컵라면과 김밥 등 식음 장면이 화제를 모으면서 라면·과자류 수출과 방한 관광 수요 확대 기대도 커졌다. 농심과 파리바게뜨 등은 관련 협업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유통 전반에서도 콘텐츠 기반 마케팅이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식문화가 해외 언론에 소개된 점도 K-푸드 확산에 힘을 보탰다.

2025년 식품업계는 성장 가능성과 구조적 경고가 동시에 드러난 해였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회를 확인했지만, 안전과 신뢰라는 근본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매출 확대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책임 경영이 생존 조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식품업계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편의점 상대적 선방… 이커머스 양극화 뚜렷

>> 1면 ‘성장은 내려놓고…’서 계속

편의점은 고물가 환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성장 한계가 분명해진 한 해였다. 2025년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전년 대비 약 -0.4%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했다. 점포 수 역시 순감소 흐름으로 전환되며, 출점 중심의 양적 성장 전략은 사실상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신 CK투자(중앙조리시설/Central Kitchen)에 대규모로 투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포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 히트 상품 개발, 기존점 성장률 제고 등 질적 성장 전략이 본격화됐다.

이커머스 시장은 외형과 성장률 간 괴리가 가장 두드러진 업태였다. 2025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270조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반기 기준 성장률은 2%대에 머물며 급격한 둔화가 나타났다. 초저가를 앞세운 C-커머스의 공세가 비식품 영역

을 잠식한 영향이다.

쿠팡과 네이버는 멤버십·AI 기반 추천·발견형 쇼핑을 앞세워 시장을 상회하는 성장을 이어간 반면, 11번가·SSG닷컴·G마켓 등은 두 자릿수 매출 감소를 기록하며 양극화가 극대화됐다. 이커머스 역시 ‘성장’보다 ‘자생력’이 화두가 된 해였다.

이처럼 2025년은 유통업계가 성장의 환상을 내려놓고 생존 전략을 재정립한 해였다. 2026년은 그 결과가 성적으로 드러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2026년을 기점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2%대 중반), 환율 안정(원/달러 1400원대 초중반), 물가안정(소비자물가 2% 안팎) 등 거시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경우 내수 소비가 1%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구조를 슬림화한 기업일수록 매출 회복 시 수익성 개선 폭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선 기자

고객사랑 평생 함께가는 보험

NH농협생명은 보험을 넘어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며 평생 사랑받는 보험이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
코리안 컴스타그림 & 협동부

히트작·추천작 한눈에 확인
간편한 온라인 보험

건강 & 포인트를 키우는
NH웰스케어

전국 어디든
5,000여 개 네트워크

코리클럽 60!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

외환당국·국민연금 ‘고강도 개입’… 이틀간 환율 43원 급락

구두개입·선물환 매도 동시 가동
원·달러 1480원대에서 1440원대

연말 앞두고 외환시장 수급 변화
국민연금 전략 운용 기간 연장
국내 복귀 자금 세제지원 병행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함께, 앞서 예고했던 국민연금의 환헤지도 본격화하면서 원화값을 끌어 올렸다. 해외로 유출됐던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세제 혜택 발표도 원·달러 환율 하락의 재료가 됐다.

◆ ‘역대급 환율’ 지속… 당국 ‘구두개입’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40.3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지난 11월 4일 이후 약 2개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 원화와 달러화가 함께 놓여 있다.

/뉴시스

월 만에 가장 낮았다. 환율이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23일의 1483.6원과 비교해선 2거래일 만에 43.3원(2.92%) 내렸다. 이달 들어 일평균 1470원을 넘겨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던 환율의 상승세가 꺾였다.

이번 환율 하락은 연말을 앞두고 환율 상승을 경계한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기인했다.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 24일 외환시장 개장 당시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당국 입장을 시장에 전달했다. 이날 메시지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을 포함했다.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1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 진입해서다. 연말 환율 증가가 높으면 내년도 금융 정책 설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말에는 수입업체의 결제 등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하는데, 수출기업들은 헤지(자산 가치 보전)를 목적으로 달러를 매도하지 않으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도 관측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실개입에 나섰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한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민연금과 당국의 ‘전략적 환헤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환헤지는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자산의 10%까지 선물환(미래 환율을 현재 시점에 확정해 두는 계약) 매도해 시장에 달러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이를 예측할 수 있어 환율 상승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날 기금운용위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수시로 환헤지를 진행하는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지난 24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외환시장에 풀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정부, ‘서약개미’ 증시 복귀 지원

정부가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던 ‘투자자금 해외 유출’을 되돌리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환율 하락에 일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3일까지 기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해 투자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에 환헤지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자산의 매각 없이도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외환시장에 선물환 거래를 통한 달러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 전문가, ‘하향 안정화’ 전망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주요한 만큼 환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주중 외환 당국의 구두개입과 외환시장 수급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공개되며 원·달러 환율의 낙폭이 확대됐다. 개인투자자의 복귀 시 혜택도 달러 공급 확대 기대를 자극했다”라면서 “대외 달러화 영향력이 제한된 가운데 외환 당국의 정책 발표로 환율이 1400원 초중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당 1480원을 넘기며 1500원을 위협했던 환율은 누적된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및 개입을 계기로 한 풀 꺾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러한 흐름은 내년 상반기로 이어져,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올해 4분기보다 조금 더 낮고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

1965년 개교 이래 부산 시민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경남정보대학교,
기술 교육·평생 교육·창업 교육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을 이끄는 ‘부산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겠습니다.



입학이 곧 취업인 대학

자신만만 취업프로그램

2, 3, 4학년 학위과정
35개 학과의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부울경 최다 인원 취업

더 높은 꿈으로 이끌어주는 대학

드림하이 편입프로그램

전공에 따라 8개 대학에 연계편입학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드립니다.

다양한 특강, 단기강좌, 정규과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의 요람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1977년 부산 최초로 개원한 평생교육원

세계의 청년들을
부산 경제의 동력으로 이끄는

글로벌 대학

‘정주형 유학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유학생을 부산시민으로!
전 세계 100여 개 대학과 함께하는
풍부한 해외연수!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

KIT. 경남정보대학교

RIA 투자대상 확대 검토 채권형 ETF·현금허용 논의

해외주식 매각자 국내 복귀 유도
환율 안정 목적 세제 혜택 연계
조세회피 차단 방안도 함께 검토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형 상품이나 원화 보유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어

투자자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처럼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상황에서 증시 부양보다는 환율 안정에 먼저 무게를 뒀다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IA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컨대 A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B 증권사의 RIA 계좌로 입금해 국내 주식을 사들여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회피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은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어쩌면 우리의 기술은
모빌리티의 일부.

하지만 이것은 분명,
미래 모빌리티의 전부를 뒤바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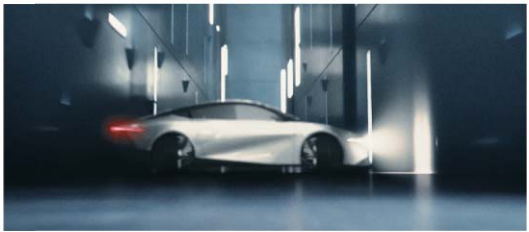
이동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자율주행 솔루션



시각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IVI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의 전부를 바꾸는
차세대 전동화 시스템



익숙한 움직임의 전부를 바꾸는
E-코너 시스템

김범석, 쿠팡 연석청문회도 불출석… “국민·국회 우롱 행위”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오는 30~31일, 6개 상임위와 청문회 개인정보 침해부터 노동환경 등 다뤄 김범석 “예정된 일정으로 불출석”

6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오는 30~31일 3300만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내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주관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부위원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와 연석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연석 청문회는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며 국민의힘은 “청문회는 침해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없다”며 청문회보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



25일 서울 시내 한 쿠팡 센터에 관계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은 청문회를 먼저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석 청문회의 질의 대상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쿠팡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아 온 불공정 거래와 노동환경 실태 등까지 다루는 연석청문회가 될 예정이다.

관심을 끌었던 김범석 의장은 다시 한

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공개한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12월30~31일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며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함

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의 동생으로 알려진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이사도 각각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큰 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과방위 여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소환과 국민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에 정부가 반발하는 등 쿠팡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해당 과정도 청문회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개

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관련 기기를 회수했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같은 발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쿠팡이 해외, 특히 미국에 영문본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심은 커져가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 주가는 쿠팡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26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6.45% 급등했다.

김범석 의장은 연석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가 공개된 28일 사과문을 게재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병기, 각종 의혹에 국정운영 ‘발목’… 사퇴 결단 내릴까

〈민주당 원내대표〉

보좌진 사적 동원 등 의혹 쏟아져 與, 침묵 속 결단 바라는 분위기 “오는 30일쯤 입장 정리해 밝힐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보좌진을 사적업무에 동원하고 갈등을 빚은 보좌진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터져나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오는 30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한 두개가 아니다. 김 원내대표는 ▲차남의 지역구 내 송실대학교 편입 특혜 및 보좌진·구의원 동원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안카드 사적 유용 ▲장



남 국정원 취업 개입 ▲박대준 전 쿠팡대표 이사와의 5성급 호텔 오찬 및 보좌진 취업 방해내용 전달 ▲상임 위 이해관계가 있던 대한항공으로부터 최고급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베트남 방문 시 대한항공 가족의전 특혜 ▲지역구 내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및 의전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사적동원 ▲차남 예비군 훈련 연기에 보좌진 사적 동원 등 의혹과 논란이 최근 끊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터질 때마다 해명을 내놓았지만, 법 망을 교묘히 비껴가거나 전 보좌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민주당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평이 나온

다. 김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이사와의 오찬에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만 먹었다고 주장했다. 5성급 최고급 호텔에서 룸을 잡고 식사한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수십만원의 식대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신은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인 5만원 안에 식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 부터 받은 최고급 숙박권 역시 현재 기준으로 2박 기준 최소 140여만원인데, 김 원내대표 스스로 자신이 낸 가격은 30만원대라고 해명해 역시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험담하며 전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지만, 지금까지 제기돼 온

보좌진 사적 동원과 이해관계 충돌 사안을 해명할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궁지에 몰리니 자기 보좌진 대화방도 마구 공개하던데, 그 보좌진이 없는 걸 조작했다는 것이 아닌 이상 김 원내대표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내부는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였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매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대표로서 이런 일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당 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보좌진과의 갈등은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저 같은 경우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김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비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의원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지명

李 대통령, 보수정당 출신 인사 낙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직제 개편안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는 가운데, 보수정당 출신 인사인 이혜훈 후보자를 예산처 장관에 낙점한 것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를 비롯한 장·차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엔 이혜훈 후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핵물리학자인 이경수 인에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17·18·20대 국회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

원을 역임한 3선 의원 출신으로,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며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으로 지명된 김성식 전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재선 의원(18·20대 국회) 출신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친 인사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경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8번을 받은 바 있다. 또 한국핵융합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한국형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을 이끈 핵융합 물리학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김종구 농림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내정했으며 대통령 정부특별보좌관엔 6선 의원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책특별보좌관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위촉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野, ‘통일교 특검법’ 추천권·수사대상 이견

野, 민중기 특검 ‘수사은폐 의혹’ 처리 與 “野 발의 특검, 처리 의지 안 보여”

여야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법 추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검 출범에 합의하고 각각 특검법안을 제출했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이 빠졌다고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

라며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 내용을 보면 처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민중기 특검이 ‘정권 봐주기’ 수사를 할 것 아니냐는 (내용에) 한정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그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헌법상 규정된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특검을 누가 맡고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30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방법으로 1월 임시회의를 통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신입사원 최나은 님

택배원 이민준 님

건물 청소원 김훈 님

버스 운전원 한재영 님

게임 개발자 윤현진 님

자영업자 강영자 님

자동차 엔지니어 박효성 님

경찰 공무원 정진원 님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일 잘하는 퇴직연금☆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개인형IRP

광고영상
보러가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퇴직연금 솔루션



비대면·대면 모두 가능한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
KB화상상담서비스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전국 영업점에서 편리하게



퇴직연금 자산관리 기준 적립금 50조 원 달성
'25년 7월 7일 기준, DB/DC/IRP 합계, KB국민은행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가입 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수수료: (사용자부담금) 개인형IRP: 연0%~0.45%, (가입자부담금) 개인형IRP: 연0.21%~0.28%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5017호(2025-11-19~2026-11-18)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4765호(2025.11.19), 광고물 유효기간 2025.11.19~2026.10.31.까지

임금체불 논란, 총파업 초읽기… ‘갈등 봉합’ 차기행장 관심

IBK기업은행 방향

‘총인건비제’ 임금체불 해결 촉구
오늘 결의대회, 내달중 파업 돌입

차기행장 후보에 내부인사 김형일
외부인사로 관료출신 도규상 거론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의 방향을 가를 새로운 행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함께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는 급여나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정해 두고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책은행이면서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 ‘임금체불’ 논란 키운 총인건비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전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1월중 실제 총파업에 돌입



기업은행 노조원들이 총인건비제에 따른 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 측은 총 인건비제 탓에 임금이 시중은행 대비 70% 수준에 그치는 데다 시간외 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은 직급별로 매월 3급 11시간, 4급 이하 13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시간외

수당과 성과급 등이 포함된 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금체불 때문에 말이 많다”면서 “총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이 있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자구노력에 더해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외업무 줄이는 방향은 효과가 크지 않고, 총액한도 예외 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 ‘파업 정국’ 속 차기 행장 변수

일각에서는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전략을 펼칠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태 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월 2일까지다. 기업은행장은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기 행장으론 내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행장 자리는 과거 관료들의 전유물이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내부 출신이 주로 행장에 임명됐다. 조준희(2010~2013)·권선주(2013~2016)·김도진(2016~2019) 전 행장과 김성태 현 행장 모두 내부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흐름을 끊고 ‘관치금융’ 리스크를 감수할 유인은 적다

는 관측이다.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되는 인사는 내부출신의 김형일 전무이사(수석부행장)다. 김형일 전무는 지난 2023년 부행장(경영지원그룹장)에서 승진했다. 1992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30년 이상 전략기획과 경영지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외부인사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금융정책과 거시경제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조는 내부나 외부 출신에 상관없이 자질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류창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임추위 절차를 거치는데 기업은행은 감감이로 진행된다”며 “함량 미달의 정권 측근 임명, 보은 인사를 답습한다면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따뜻한 금융 바탕, 생산·포용 모델 구축”

신한은행, 그룹 조직개편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책’ 기본구상
투자·대출 등 4개분과 추진단 발족
자회사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신설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사진)은 28일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 하기위해 그룹 조직개편을 실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는 신한금융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로,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관리 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PMO)’을 신설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초기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11월 해당 조직을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 위원회’로 격상해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해당 전략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은 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사무국장을 맡는 추진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자 ▲대출 ▲재무·건전성 ▲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신한금융은 추진위원회, 분과별 협의회, 추진단 임원회의 등 각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자회사에도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체계를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 위원회’로 격상해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해당 전략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제도 설계부터 운영·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신한금융은 새해를 맞아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이 동참해 고금리 가계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는 ‘헬프업 & 밸류업’을 포함한 밸류업 3종 프로젝트를 더욱 고도화해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팽겨요 사업자대출과 ERP(전자적 자원관리) 뱅킹 등 그룹사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자영업자·중소기업·지역사회를 위한 차별화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용금융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이어갈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한만의 지속 가능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미래에셋생명 서울 우리마포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장애인 직업재활 ‘포장 봉사’

“장애인 경제적 자립 지원에 노력”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서울 우리마포 종합복지관에서 마포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을 돕는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업재활 포장 봉사에 참여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자들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내 보호작업장에서 일손을 거두고 쇼파백 포장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미래에셋생명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에 동참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임직원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현금 사용 줄고, 개인·기업 보유액은 늘어

한은,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경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현금 보유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경우 소득별 모든 구간에서 현금 보유액이 증가했다. 기업도 4년 전보다 현금 보유액이 2배 가량 확대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월평균 현금 지출

액은 약 32만4000원으로 지난 2021년보다 18만2000원(36%) 감소했다.

현금 지출액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8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 및 소득별로는 60대 이상(20.8%),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59.4%)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은 현금 지출 규모가 월 평균 112만7000원으로 지난 2021년(911만7000만원)보다 799만원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현금 지출 규모가 220만원으로, 4년 전보다 약 250만원 감소했다.

금리 하락,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현금 보유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개인

의 경우 현금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0만3000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2만1000원(25.6%) 증가했다.

특히, 월 가구 소득별 모든 구간에서 현금 보유액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 간 격차도 지난 2021년 4만1000원에서 올해 2만8000원으로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현금 보유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기업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지난 2021년(469만5000원) 대비 508만3000원(108.3%)으로 확대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올해 마지막주 전국 11곳, 6989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2월 마지막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69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 분양은 5873가구가.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용인시 역북동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신일비아프레스트(1·2단지)’, 울산 중구 반구동 ‘태화강센터엘아파트’ 등 10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서 ‘태화강센터엘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6개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KTX가 정차하는 동해선 태화강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며, 강북로를 통해 울산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태화강변, 동천강변 산책로, 학성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내화초, 울산가온고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연말 한 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2026년 1월 첫째 주(1/5~1/11)부터 재개된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물금센트럴’ 1곳이 오픈 예정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 두근두근 프로젝트 #3

인생의 2막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새로이 펼쳐질 인생,
든든한 미래의 설계까지
시니어금융을 맞이하는 당신을 위해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K-배터리, 전기차 ‘수요절벽’ 비상 ESS 분야 등 포트폴리오 재편 속도

車업계 공급계약 변동성 커져
북미 등 배터리사업 구조 손질
일부 자산매각 통해 재원 확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장기화 속에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프로젝트 축소·조정과 대형 장기 공급 계약 해지가 잇따르자 합작법인 구조 변경, 자산 매각 등 투자 재조정에는 나섰고 있다. 배터리 수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사업 구조를 손질하며 생존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과 체결한 전기차용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 해지를 연이어 공시했다. 이달 17일 미국 포드와 맺었던 약 9조6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파기를 알린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Freudenberg Battery Power System)와 체결했던 3조9217억원 규모의 계약 해지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에만 약 13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수주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이번 FBPS 계약 해지는 해당 기업의

배터리 사업 철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FBPS는 당초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팩으로 조립한 뒤 북미 상용차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둔화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차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자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GM의 전기차 사업 축소로 GM과의 배터리 합작을 정리하기로 하고, 합작법인인 미국 얼티엄셀스 3공장을 인수해 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일본 혼다와 설립한 북미 합작사 ‘L-H 배터리’의 공장 건물과 관련 자산을 약 4조2000억원에 혼다 미국 법인에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GM과 포드 등 주요 고객사의 배터리 수요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판로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장기 불황에 대비할 재원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SK온 역시 북미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하며 각자도생 체제로 전환했다. 이달 11일 포드와 공동 운영해 온 ‘블루오

벌SK’ 합작 구조를 종료하고 생산 시설을 분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캔터키 1·2공장은 포드가, 테네시 공장은 SK온이 각각 맡는 방식이다.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거점으로 포드 외 다양한 고객사 유치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중심이던 제품 포트폴리오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 사업 재편과 함께 ESS 사업 확대를 병행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나 경쟁 구도와 사업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직은 ESS 배터리 수요가 전기차 배터리 수요 대비 약 25% 수준에 그친 데다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선호가 높아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LFP를 직접 생산하더라도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지 않으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KGM, 플래그십 픽업트럭 ‘무쏘’ 출격 대기

‘디젤·가솔린’ 두 가지 파워트레인
내년 초 출시 예정… 시장 1위 목표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절대강자’ KGM모빌리티(이하 KGM)가 기아와 1위 자리를 두고 본격적인 추격에 나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차세대 플래그십 픽업트럭 신형 ‘무쏘’를 내년 1월 출시하고 시장 1위 탈환에 나선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무쏘는 픽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론칭한 무쏘 픽업 통합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차량과 브랜드명을 동일하게 적용해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무쏘는 KGM의 디자인 철학 ‘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정통 오프로드 스타일의 역동적이고 단단한 외관 디자인을 구현해 오리지널 픽업 아이덴티티를 한층 강화했다. 강인한 스퀘어 타입 프론트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KGM이 새롭게 선보인 픽업트럭 무쏘 그랜드 스타일.

을 비롯해 역동적인 측면 캐릭터 라인과 볼륨감이 픽업 본연의 역동성을 더욱 강조한다.

여기에 전면 디자인을 차별화한 ‘그랜드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 사양으로 운영해, 아웃도어부터 도심 주행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랜드 스타일’은 도시에 어울리는 웅장한 어반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디젤과 가솔린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점유율을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KGM 관계자는 “무쏘는 일상과 아웃도어를 넘나드는 디자인 구성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라며 “강인함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편리하고 즐거운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전장사업 경쟁력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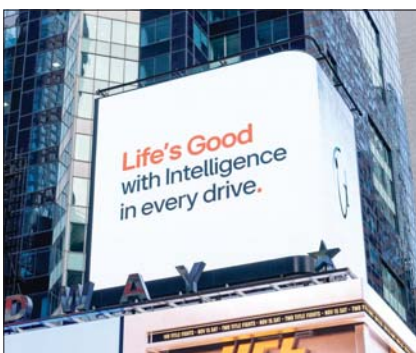
LG전자가 미국과 영국의 주요 명소에서 전장 사업 관련 캠페인 영상을 선보이며 기업간거래(B2B)사업의 핵심 축인 전장사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대중에게 알린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 전장사업의 대중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LG 온 보드’ 캠페인 영상을 공개

했다고 28일 밝혔다. LG온 보드는 ‘LG의 전장 기술이 자동차에 탑재됐다’는 뜻과 ‘LG가 고객의 주행 경험을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캠페인 영상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인캐빈 센싱 등 LG전자의 다양한 전장 솔루션이 고객의 차량 내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기업간거래(B2B)사업의 핵심 축인 전장사업의 경쟁력을 대중에게 알리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LG전자

미리보는 CES 2026

삼성, ‘뮤직 스튜디오 5’ 등 신제품 공개

LS70H·HW-Q990H 등 라인업

삼성전자가 CES 2026 개막에 앞서 오는 1월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더 퍼스트룩’ 행사를 열고 2026년형 사운드 기기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26년형 사운드 기기 신제품 라인업은 ▲뮤직 스튜디오 7·5 ▲HW-Q990H ▲HW-QS90H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와이어리스 스피커 신제품 ‘뮤직 스튜디오 스피커’ 2종은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리프’를 디자인한 프랑스 출신 가구 디자이너 에르완 부홀랙이 디자인했다.

‘뮤직 스튜디오 7(LS70H)’은 전방·좌우·상단 스피커를 탑재한 3.1.1 채널 공간 오디오로 3D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구현한다. 소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 삼성 ‘오디오랩’에서 개발한 음향 기술이 탑재됐다.

‘뮤직 스튜디오 5(LS50H)’는 콤팩트한 디자인과 균형 잡힌 사운드를 구현한 모델이다. 4인치 우퍼와 듀얼 트위터를 적용해 선풍하고 균형 잡힌 음질을 구현했으며, AI 다이나믹 베이스 컨트롤로 깊은 저음을 제공한다.

플래그십 모델인 ‘HW-Q990H’는 TV 속 대화 소리를 화면 중앙으로 끌어올려 전달하는 ‘사운드 엘리베이션’ 기술을 적용했다. 또 콘텐츠와 채널 간 음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오토 볼륨(Auto Volume)’ 기능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청취 경험을



삼성전자 뮤직 스튜디오 5 제품 이미지. / 삼성전자

제공한다.

‘HW-Q990H’는 11.1.4채널 시스템으로 ▲7.0.2메인바 ▲4.0.2리어 스피커 ▲8인치 듀얼 액티브 컴팩트 서브우퍼로 구성됐다.

2026년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별도 우퍼가 필요 없는 올인원 사운드바 ‘HW-QS90H’는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중시했다.

벽걸이와 테이블 탑설치를 모두 지원하는 컨버터블 핏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내장된 자이로 센서가 설치 방향에 따라 채널 분포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HW-QS90H’는 7.1.2채널 시스템과 9개의 와이드 레인지 스피커를 포함한 13개의 드라이버, 쿼드 베이스 우퍼를 탑재해 별도의 서브우퍼 없이도 깊은 저음을 구현한다.

신제품들은 삼성전자 TV에 내장된 스피커와 사운드바 스피커가 동시에 사운드를 구현하는 Q심포니 기능이 한층 진화했다. TV와 최대 5대의 사운드 기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공간 구조와 기기 배치를 분석해 최적화된 서라운드를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LGD, 세계최초·최고 제품 대거 소개

39인치 5K2K OLED 패널 등 공개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기록을 가진 제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1월 6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현존 게이밍 OLED 패널 중 ▲세계 최고 주사율(720Hz)·응답속도(0.02ms) ▲세계 최초 39인치 5K2K ▲세계 최초 240Hz RGB 스트라이프 픽셀 구조 등을 기록한 제품들을 소개한다고 28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27형 게이밍 OLED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새로고침한다는 의미다. OL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LCD 패널 평균 응답속

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02ms의 응답속도를 달성했다. 주사율과 응답속도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이전 프레임의 잔상이 남거나 경계가 뿌옇게 번지는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 최초의 39인치 5K2K 게이밍 OLED 패널도 이날 공개된다. LG디스플레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39인치 OLED 패널은 영상감독 등 전문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해상도인 UHD를 뛰어넘는 초고화질과 21:9 비율에 1500R 곡선 디자인을 더한 커브드 제품으로 최상의 몰입감을 제공한다.

세계 최초의 240Hz RGB 스트라이프 픽셀 구조 OLED 패널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제품은 240Hz 고주사율로 우수한 게임 성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1인치 당 픽셀 수가 160ppi에 달해 정교하고 선명한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다. 또, 대중화된 컴퓨터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픽셀 구조 덕분에 완벽한 글자 및 색 선명도를 보여준다.

/차현정 기자

몸집 커진 ‘K-벤처’… 매출 재계 3위에도 수출기업 27%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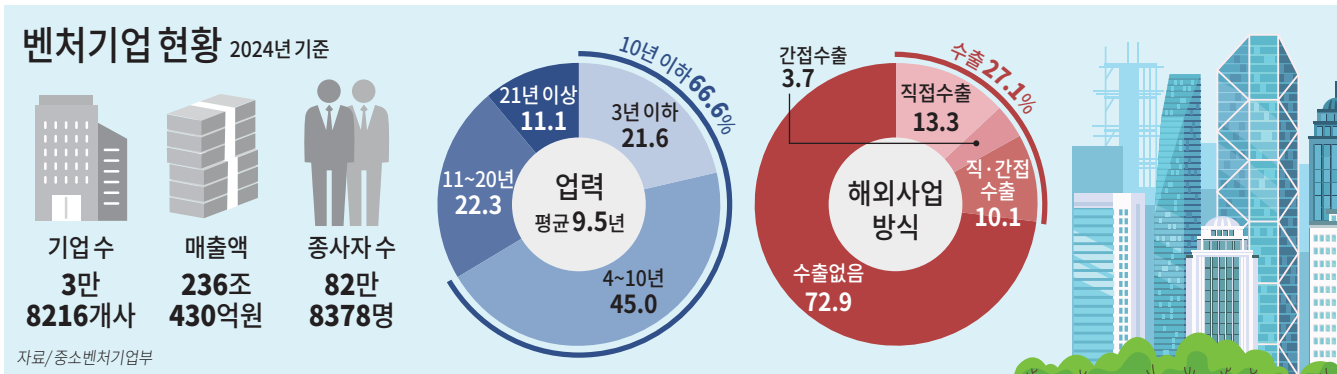
중기부 2024년 벤처실태 조사

벤처社 3만8216곳, 소셜벤처 3259곳
총매출 236조·종사자 82만8378명
직·간접 수출기업 비중 27.1% 그쳐
평균 업력 9.5년, 수도권 비중 66.6%

‘K-벤처기업’의 매출은 삼성,현대차에 이어 재계 3위권이고 고용은 4대 그룹의 상시근로자를 훌쩍 뛰어 넘는 등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곳 중 7곳 가량은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기업이고 업력도 10년 이하로 짧았다. 전체 벤처기업의 67%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는 등 수도권 집중도 역시 심했다.

이와 별도로 소셜벤처기업은 지난해 3259개사로 전년보다 21.6% 늘었고 평균 고용인원은 19.8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의 78.5%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며 사회적 가



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벤처 30주년’을 맞아 2024년 기준 벤처확인기업(3만8216개사)와 소셜벤처기업(3259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 등을 분석해 28일 내놓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와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236조원, 종사자수는 총 82만 8378명으로 파악됐다.매출액은 삼성

(332조)과 현대차(280조)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이고, 종사자수는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상시 근로자(74만 6000여명)보다 많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계 3위 수준의 매출은 벤처기업 집단 전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종사자수가 4대 그룹을 합한 인원보다 많다는 것은 벤처기업이 단순히 혁신기업 집합이 아니라 국가 전체 고용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다만 벤처기업들의 평균 업력은 9.5년으로 10년 이하가 전체의 66.6%에 달했다. 수출은 직접수출(13.3%), 간접수출(3.7%), 직·간접수출(10.1%) 등 27.1%가 수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 72.9%는 수출이 없었다.

본사 소재지는 수도권이 66.6%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 12.1%가 위치해 있다.

이런 가운데 벤처기업의 산업 경쟁력

은 연구개발(R&D) 지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6.5%로, 일반 중소기업(0.8%)의 8배를 웃돌았다. 이는 대기업(1.9%), 중견기업(1.2%)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2%, 평균 고용은 11.9%, 지식재산권 보유는 70.6% 각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벤처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6.2%p,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1%p 늘었다.

소셜벤처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매출액(2024년 기준)은 3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셜벤처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1+2+3순위)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57.1%)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42.3%)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34.1%) 등이 주를 이뤘다.

평균 업력(8.6년)과 수도권 집중도(48%)는 벤처기업보다 낮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구조개편 본격화

NCC 구조조정 속도, 설비 효율화 대산·여수 NCC 통합 재편 선제 추진

롯데케미칼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전환 국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 재편과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고부가스펙설비 소재와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롯데케미칼은 충남 대산과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 NCC 설비 통합과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NCC 구조개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 11월 대산공장과HD현대케미칼을 합병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한보다 한 달가량 앞선 조치로,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구조개편의 1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안에는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HD현대케미칼과

합병을 통해 중복 설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수산단에서도 한화솔루션,DL케미칼, 여천NCC와의 중복 설비를 통합·조정하는 추가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롯데케미칼은 범용 사업 축소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370만톤 규모로 제시된 NCC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향후 채굴단 실사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구조개편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도 병행하고 있다. 전남 울진에는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해 올해 10월 일부 라인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 시 연간 50만톤 규모의 국내 최대 단일 컴파운드 생산공장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와 IT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고기능성 소재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지소재 분야에서는 자회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통해 하이엔드 동박 및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 국내 배터리 및 ESS, AI, 반도체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서도 울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대산석유화학 단지에는 고압 수소출하센터를 준공해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를 강화했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한 한덕화학의 TMAH 생산설비 확대에 나섰다. 경기도 평택에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며 내년 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법인 지분 활용과 비핵심 사업 정리를 통해 지난해부터 약 1조7000억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며 나아가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사업 구조 혁신을 통해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활동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귀뚜라미그룹, 41년간 장학사업으로 인재 육성

전국서 장학생 7만명 배출 올해 2763명에 장학금 26억 교육·복지재단 통해 사회환원

귀뚜라미그룹이 지난 41년간 미래 인재 육성 의지로 전국에서 7만명이 넘는 장학생을 배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만 총 2763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28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2025년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시를 시작으로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

국 42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 2763명을 선발, 총 26억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귀뚜라미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지난 1985년부터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창업주 최진민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귀뚜라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최소한의 교육 보장,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41년 동안 지역 사회 미래 인

재들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자처했다. 그동안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교육기관 발전기금 등 귀뚜라미문화재단이 주요 목적사업으로 후원한 금액은 약 550억원에 달한다.

장학 사업에 대한 귀뚜라미그룹의 관심과 진정성은 창업주의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전북 익산 등 올해 진행한 전국 지자체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 장학생들에게 애정 어린 격려와 조언을 건넸다.

/김승호 기자

김경수 에몬스 회장, ESG 지배구조 혁신상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서 호평 “확산 가능성·지속성 동시 갖춘 기업”

에몬스 김경수 대표이사·회장(사진)이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2025 대한민국 ESG 기업지배구조 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28일 에몬스에 따르면 K-ESG 기준 평가원(KES)과 대한민국 K-ESG 경영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은 ESG 기반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단체·개인의 성과를 인증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이다.

올해 심사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혁신성, 확산성·지속성 등 5가지 기준으로 진행했으며 에몬스는 투명경영·책임경영·ESG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한



지배구조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에몬스는 ‘사람 중심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ESG 핵심 원칙을 전사적으로 제도화한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특히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장학사업 등)의 장기적 운영 ▲숙련기술 인재 육성 및 안정적 고용 기반 강화 ▲고객 안전·품질보증·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체계 ▲외국인·고령 근로자를 포함한 공정노동·인권 보호 시스템 ▲중대재해 Zero 추진체계 기반의 안전보건 운영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에몬스에 대해 “대한민국 제조 산업군에서 ESG 경영 실행 모델로서 확산 가능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AI 적용 11개 제품 ‘My, AI’ 인증

정수기·비데·매트리스까지 AI 확대

코웨이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스마트 매트리스 등 11개 제품이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25 My, AI 인증’을 획득했다. 28일 코웨이에 따르면 ‘My, AI’ 인증은 AI 기술을 탑재한 제품과 서비스의 실제 생활 기여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소비자 조사를 통해 유용성과 편의성,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상품을 선정한다.

코웨이는 올해 ‘2025 My, AI 인증’ 평가에서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스마트 매트리스 전 제품군에서 총 11개 제품이 대거 선정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수상 제품은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 ▲아이콘 정수기2 ▲엘리트 빌트인 정수기 ▲노블 공기청정기2 ▲롤루더블 케어 비데2 시리즈 ▲비렉스 스마트 매

트리스 시리즈 2종 등으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와 스마트 진단 기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웨이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코웨이만의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아이오케어 플러스(IoCare+, Internet of Care)’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맞춤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의 일상을 관찰하고 분석·진단해 최적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케어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품을 제어하고 소모품 상태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 환경을 지원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소비자의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국가대표 AI 정예팀’ 개발성과 공개… 5곳 중 4곳만 선발

정부, 독자 AI파운데이션 발표회

네이버클라우드 ‘옴니 파운데이션’ SKT, 초거대 AI ‘A.X K1’ 공개 업스테이지, 글로벌 확장성 입증 NC AI, 산업 분야 최적화 모델 개발 LG AI연구원, 역사원 복합추론 부가

글로벌 초거대 인공지능(AI)과의 정면 승부를 선언한 국내 AI 정예팀들이 처음으로 실력을 드러낸다. 글로벌 최신 모델 대비 95% 성능을 목표로 한 ‘무빙 타깃’ 경쟁 속에서, 이번 무대는 기술 격차를 좁혔는지 아니면 한계를 드러낼지 가늠하는 사실상의 1차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대국민 발표회를 열고 국가대표 AI 정예팀의 개발 성과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한다. 지난 8월 선정된 5개 기업(컨소시엄)은 이번 무대를 통해 각 컨소시엄이 지향하는 기술적 방향성과 서비스 완성도를 시연하며 대한



오는 30일 국가대표 AI들이 처음으로 대중에 실력을 공개한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민국 AI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 평가와 별개로 운영돼 현장 반응이 점수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으나, 각 팀이 보유한 프런티어급 모델의 실질적인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단계평가를 통해 5개 팀 중 4개 팀만을 다음 단계로 선발하는 압축 과정을 거친다. 성능 목표는 글로벌 최신 모델 대비 95% 이상을 달성해야 하

는 무빙 타깃 방식이 적용돼 기술적 장벽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단순한 성능 수치를 넘어 독자적인 아키텍처와 산업별 특화 전략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각 컨소시엄은 범용 서비스부터 산업별 특화 모델까지 저마다의 강점을 극대화한 독자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포털 1위 저력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영상을 통합 이해하는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주력한다. 트렐브랩스와 협력해 쇼핑, 지도 등 핵심 서비스와 연계된 국민 체감형 AI 에이전트 환경을 구축한다.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519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초거대 AI 모델 ‘A.X K1’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경쟁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 체급을 확보했다. 이 모델은 한국어와 우리 문화에 특화된 성능을 바탕으로 소형 모델에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 역할을 수행하며, 에이닷 기반의 대중 서비스부터 제조·로봇 등 산업 현장까지 AI 전환을 주도한다.

업스테이지는 작지만 강한 모델인 솔라 월드 베스트를 통해 글로벌 확장성을 입증한다. 310억 매개변수 규모임에도 글로벌 성능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솔라 프로 2의 기술력을 최대 3000억 파라미터 규모로 확장하며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문서 요약이나 계약서 리뷰 등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SaaS형 서비스를 핵심 시연 항목으로 설정했다.

NC AI는 버티컬 AI 전략을 강화한다. 김택진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14년 전부터 시작된 AI 연구 결과물인 바르코 모델을 중심으로 제조, 물류, 로봇, 콘텐츠 등 특정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LG AI연구원은 역사원 4.0의 복합 추론 기능을 부각한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AI 모델을 공개하며 논리적 추론과 수학적 사고 능력을 극대화한 LG는 바이오와 정밀 의료, 전문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회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가대표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완료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행사는 사전 등록제로 운영되며 공식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참관객들은 오전 10시부터 마련된 각 팀의 체험 부스를 통해 대한민국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오후부터는 각 정예팀의 심층적인 기술 발표와 시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정재현 SKT CEO, 연말 통신 현장점검 나서

‘기본과 원칙’ 초점 맞춘 현장 방문
현장 위험요소, 안전 매뉴얼 등 점검
트래픽 급증 대비 비상 대응체계 확인

SK텔레콤은 정재현 CEO가 통신 트래픽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직접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해 MNO(이동통신) 쟁기에 나섰다 28일 밝혔다.

정 CEO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 분당사옥 네트워크 종합상황실과 고양시 기지국 신설 및 서울 동대문구 광케이블 접속 작업 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곳에서 통신 트래픽 대응 태세 및 보안, 안전(SHE) 수칙 준수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본과 원칙’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CEO는 기지국 설치가 진행 중인 작업 현장에 올라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안전 매뉴얼과 장비도 점검했다.



정재현 SK텔레콤 CEO(오른쪽 첫번째)가 네트워크 종합상황실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SKT

정 CEO는 종합상황실에서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확인하며, 연말연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또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자리를 지키는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서현 기자

정재현 CEO는 “AI 시대의 변화도 탄탄한 기본과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품질과 보안, 안전 등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고객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SOOP, 스트리머 돕는 ‘AI 매니저’ 고도화

‘SOOP 스트리머 대상’ 성료

스트리머를 돕는 수준을 넘어, 자리를 대신하는 인공지능(AI)까지 등장했다. SOOP은 올해 스트리머 대상 행사에서 AI 2.0 전략을 공개하며 플랫폼 진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SOOP은 지난 27일 삼암 SOOP 콜로세움에서 컬처랜드와 함께하는 ‘SOOP 스트리머 대상’을 성료했다. ‘SOOP 스트리머 대상’은 2011년 시작돼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SOOP의 연말 시상식이다.

1부에서 SOOP 대표이사 겸 CEO 케빈이 SOOP AI 2.0 VCR 및 AI 관련 발

표를 진행했다. 케빈은 “스트리머를 도와주는 AI 매니저 ‘쌈사’를 내년 현충일에 버전 1.0에서 2.0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쌈사가 자리미션 스트리머 대신 스트리머의 목소리·표정·제스처로 방송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요약 실시간 게임 분석은 물론, 화면에 송출되는 물건의 정보창을 띄울 수 있어 콘텐츠와 광고의 구분이자 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스트리머가 컬처랜드 상품권을 들고 있으면, 이를 인식해서 금액·사용처·유효기간·사용방법 등이 제시되는 식이다.

2부의 CEO 토크에서 다니엘 대표이사 겸 CEO는 SOOP 2025년 결산과 2026년 전망을 키워드로 발표했다. 다니엘은 2025년을 ▲2025 스트리머 콘텐츠 지원 확대 ▲SOOP 글로벌 진출 지원 ▲SOOP 브랜딩 캠페인 with. Faker ▲AI 서비스 첫 도입으로 설명하고 2026년은 ▲1월 플랫폼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AI 고도화 ▲콘텐츠 제휴 지원 강화라는 키워드로 발표했다.

내년 1월에 SOOP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었던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을 통합할 예정이다. 주요 e스포츠 콘텐츠 다국어 중계 및 국내외 스트리머 합방을 AI 자동 번역 기능과 자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면서 커뮤니티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네이버클라우드, AI 금융서비스 혁신 ‘맞손’

JB금융그룹과 업무협약

네이버클라우드와 JB금융그룹(광주은행,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과 자사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와 JB금융그룹 계열 3사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하이퍼클로바X, AICC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 발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협력 ▲금융 분야 AI 연구 및 특화 모델 공동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JB그룹은 기업 여신 상담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금융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네이버클라우드의 거대언



(왼쪽부터)JB우리캐피탈 이재관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전북은행 탁형재 부행장, 광주은행 변동하 부행장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업무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상담 단계에서는 상담 정보와 각종 문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정형화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서·재무자료·거래 정보 등을 AI가 요약·분석해 심사 판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심사 종료 후 승인 판단 근거를 AI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 여신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AI 활용 모델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올해 한국인 최다이용 SNS ‘유튜브·카톡’

숏폼 중심 플랫폼 성장세 ‘팔목’
전통 SNS 플랫폼은 하락세 보여

올 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스레드 등 숏폼과 관심사 기반 플랫폼은 성장세를 보였고,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밴드는 이용자가 줄었다.

28일 아이지아이웍스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요 SNS 플랫폼 월간활성사용자수에서 유튜브와 카카오톡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유튜브는 1월 4703만명에서 11월 4848만명으로 늘며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톡도 4569만명에서 4646만명으로 1.7% 성장했다.

숏폼 중심 플랫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틱톡 라이트는 479만명에서 617만명으로 28.7% 증가했다. 메인 서비스인 틱톡도 같은 기간 21.7% 성장했다.

사진과 짧은 텍스트 중심의 스레드는 480만명에서 587만명으로 22.3% 늘었다.

반면 전통 SNS 플랫폼은 하락세를 보였다. 카카오톡은 355만명에서 285만명으로 19.8% 감소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H 현대해상

Sincerely
yours
1955-2025Sincerely
yours
1955-2025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 현대해상의 70년이 되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내일을 더 기대하는 마음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
더 잘해내고 싶은 마음
반드시 지켜주고 싶은 마음까지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현대해상의 70년

앞으로도 변함없이,
마음이 합니다



ABCD 산업 중심 질적성장… 대형 딜 늘고 퇴출 빨라졌다

(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방산)

코스닥 IPO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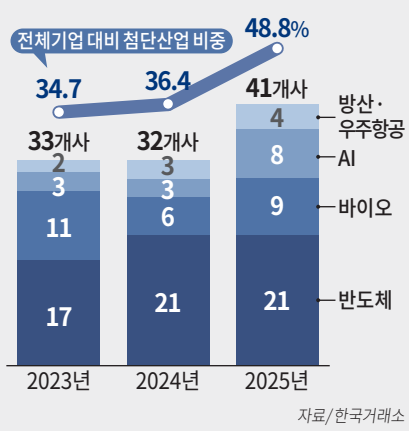
첨단산업 신규 상장 3년 중 최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15.3조 기록
상장폐지 38사… 퇴출기간 384일

코스닥 IPO 시장이 ‘숫자’보다 ‘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올해 신규상장 84사(스팩 제외)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공모로 2조5000억원을 조달하며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5조3000억원으로 202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상장폐지 결정은 38개사로 늘었고, 실질 심사 퇴출 기간은 평균 384일로 단축됐다. 한국거래소는 내년에도 첨단산업 중심 상장 유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실기업 퇴출 기준과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올해 IPO 시장, 우량 강소기업·첨단 산업 중심 재편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사는 84곳으로 집계됐다. 일반기업은 49사로 늘었고, 기술

첨단산업 신규상장 현황



기업은 35개사로 소폭 줄었다. 스펙 상장은 수요 둔화로 전년보다 15개사 감소했다. 다만 상장 기업 수 감소에도 공모 금액은 확대되며, 상장기업 1사당 평균 공모금액과 평균 기업가치(공모가 기준 시가총액)는 전년 대비 각각 12.5%, 17.0% 증가했다.

올해 IPO 시장은 우량 강소기업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5사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리브스메드,

세미파이프, 에임드바이오, 씨앤티엑스, 더핑크퐁컴퍼니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에임드바이오·옴테라퓨틱·알지노믹스 등 11개사는 상장 당해 연도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으며, 에임드바이오는 12월24일 기준 시총 4조원을 넘겨 코스닥 시총 12위에 올랐다.

수요예측과 청약지표도 개선됐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1128대 1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모가가 밴드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87%에 달했다. 상장 후 3개월 기준 주가도 코스닥 지수 대비 40.6%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하며 전년(-6.0%) 대비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ABCD(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방산) 기업 비중이 확대됐다. 올해 첨단산업 신규 상장은 41사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고, 바이오(21사), 반도체(9사), AI(8사), 방산·우주항공(4사) 순으로 나타났다. AI 기업은 응용서비스(API) 중심으로 상장이 늘었고, 바이오는 2년 연속 20사 이상이 상장하며 대형 바이오텍과 신약개발 기업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외국기업 상장도 재개됐다. 영국국적 딥테크 기업 테라뷰홀딩스가 코스닥에 입성하며 외국기업 국적이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영국까지 확대됐다. 외국 기술기업 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6년 만에 순수 외국 기술기업이 코스닥을 선택한 사례다.

◆ 상장폐지는 2.5배 늘고 심사기간은 21% 단축… 내년 ‘퇴출 강화’ 예고

한편 올해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결정 기업은 38사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약 2.5배 늘었다. 형식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는 15사, 실질 사유는 23사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부실기업 퇴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절차 효율화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심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의 평균 퇴출 소요기간은 384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105일 줄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되며 평균 261일까지 단축돼 상반기 대비 48% 감소했다. 심의 단계 축소와 형식·실질 사유 병행심사, 개선기간 축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결정한 사례도 11사로 최근 3개년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거래소는 내년에도 상장 유입과 퇴출 강화를 병행하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규상장 분야에서는 AI·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상장심사 기준을 고도화해 기술 가치와 성장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분야에서는 기술특례기업 관리를 강화한다. 특례기간 중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해 기술사업을 포기할 경우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고, 실질심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개선계획 검증과 중간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장폐지 요건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150억원(2026년)→200억원(2027년)→300억원(2028년)으로 높아지고, 매출액 기준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상장폐지 이후에도 최소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K-OTC 거래 지원이 병행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공시 강화

자산운용사·연기금 등 이행점검 확대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 요소 포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견권 행사 비율이 높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참여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은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시스

참여기관은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무 점검한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이행점검은 2026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부터 시작해 보험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매년 12월에는 점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가 공개된다. 참여 기관별로 어떤 항목을 이행했고, 어디서 미흡했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공시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각 기관 홈페이지에만 흩어져 있던 이행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하고, 항목별 이행 여부를 정리한 종합 점검 보고서를 추가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책임 이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도 손본다. 그동안 지배구조 중심이었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사회 등 ESG 요소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부동산·인프라·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 개정 사례를 반영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내실화 방안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선언’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저소득 취약계층 연탄 후원

정은보 이사장 “나눔의 가치 확장”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기 위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10만장을 후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회장, 강정철 부산연탄은행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후원된 연탄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부산과 서울 지역 난방시설이 열악한 취약계층 500가구에 순차적으로 전

달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은 한국거래소가 2011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겨울철 사회공헌활동인 연탄·김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거래소는 올해도 연탄 10만장과 김치 26톤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정은보 이사장은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번 나눔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순간마다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연말 공모주 시장 혼풍… 내년 케이뱅크 등 대어 몰려온다

IPO 건전성 제고 등 제도 변화 주효

12월 국내 증시에서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공모주 혼풍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상장종목 대부분이 거래 첫날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 관심을 끌었다.

에임드바이오와 알지노믹스는 코스닥 입성 첫날 ‘따따블’(공모가의 4배)을 달성했다. 에임드바이오는 둘째 날, 알

지노믹스는 둘째 날과 셋째 날에도 30.00% 상승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아크릴은 상장 첫날 243.59% 급등했다. 영국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테라뷰와 삼진식품은 각각 100.00%와 152.76% 오르며 ‘따블’(공모가의 2배)로 거래를 마쳤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는 제도 변화가 꼽힌다. 지난 7월 시행된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이 줄었고, 상장 초기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12월 상장 기업들의 평균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60%를 웃돌며 상반기 대비 크게 확대됐다.

내년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케이뱅크, LS그룹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 등 대어들이 IPO 시장 랠리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넥스트레이드, 내년 1분기 700개 종목 거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1분기 매매체결 대상 종목을 700개로 확정했다.

넥스트레이드는 28일 코스피 375종목, 코스닥 325종목 등 총 700종목을 2026년 1분기(1~3월) 매매체결 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350개에 더해, 비지수 종목 가운데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각각 175개씩

추가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에임드바이오 등 120개 종목이 신규 편입됐고, 삼성전자·알테오젠 등 477개 종목은 직전 분기에 이어 연속 포함됐다. 반면 SK네트웍스, 파트론 등 152개 종목은 편출됐다.

직전 분기 거래량 한도 관리 차원에서 제외됐던 종목 가운데서는 한국전력, 에코프로 등 103개 종목이 재편입됐다.

/허정윤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농업 외국인력 10만2000명 도입 곡물·기타식량작물도 첫 고용허가

농식품부, 고용부·법무부 협의

상반기 농업 외국인력 역대 최대
계절근로자 중심 공급 물량 확대
곡물·식량작물 농가 고용 포함
소규모 농가도 고용 요건 완화

정부가 내년 상반기 국내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 명 이상 지원한다. 특히 그간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타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해 2026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000명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배정 규모는 8만7375명으로, 올해 상반기배정 인원(6만1248명)에 비해 43% 늘어났다.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확대돼 올해 90개소 3047명에서 내년에는 130개소 4729명이 배정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 명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 배정 인원은 총 10만2104명으로 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충북 괴산의 한 농촌지역에 파견돼 일손을 돕고 있다.

/뉴시스

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형별로 보면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8개월로, 주로 과수·밭작물 등 계절성이 강한 분야에 종사한다.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기간 3년에 1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축산 및 시설원에 분야에 투입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 신청에 따라 일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과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부문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와 특수작물 분야의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2000~4000㎡ 미만 농가에 8명까지 배정됐는데, 앞으로 1000~4000㎡ 미만 농가도 동일하게 8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도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8개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협, 도농상생기금 하반기 4717억 지원

도시 농축협 자발적 출연확대 농촌 농축협 경영안정 뒷받침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4717억 원 규모의 도농상생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상생위는 도시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돼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해 왔다.

28일 농협에 따르면 도농상생기금은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난

2012년부터 도시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올해 이번 지원금을 포함해 상·하반기 도합 8405억 원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했다.

농협 관계자는 “전년대비 49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전국 228개 도시농축협의 경영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에 동참해 도농상생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농촌지역 농축협은 해당 기금을 활용해, 자연재해 및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에 따른 경제사업 손실 보전에 나선다. 아울러 농축산물 판매·유통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농협은 앞으로도 상생협력위를 중심으로 도농상생기금을 지속 확충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해, 전국 농축협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내 크루즈 기항지에 전북·경남권 추가

해수부, 새만금·마산항 선정
서해·남해 크루즈 거점화 추진

해양수산부가 전북 새만금신항과 경남 창원 마산항을 국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항지로 추가된 두 지역은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가깝고 전주·군산 등 주변 도시와 연계 관광도 가능해, 서해권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마산항의 경우, 부산항·여수항을 연결하는 남해권 순환항로 구축에 유리하고 역사·문화·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새로 지정된 2개 기항지와 기존 7개 기항지(부산, 인천, 제주, 전남

여수, 강원 속초,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의 활성화에 나선다. 이들 기항지가 해외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유치 행사(포트세일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크루즈 선사·여행사와의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또 지방 정부와도 협력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기항지 환영행사 및 지역축제 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크루즈 기항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잡월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재획득

3년간 3.6만명 진로교육 성과 인정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2025년도 인증 갱신에 성공했다. 인증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28일 한국잡월드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직업·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기부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재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교육기부 기관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22년 신규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성과를 이어가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3년간 한국잡월드는 총 906회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만 6093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기부 활동을 제공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

우르는 ‘어쩌다 진로’ 프로그램을 비롯해 취약계층 진로체험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부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구성고등학교(특수) 등 도서·산간 및 교육격차가 큰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현장 방문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취약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혔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인증 갱신은 교육기부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환경·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접근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연·고 수시 미충원 4년 새 최대

종로학원, 정시 이월 확대 분석
자연계 변수·인문계 경쟁 심화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 미충원이 4년 새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시 이월 인원이 늘어난 가운데, 자연계열은 최상위권 감소 영향으로 합격선 변동 가능성이, 인문계열은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2026학년도 수시 최종 등록 마감 이후 서·연·고가 공개한 이월 인원을 집계·분석한 결과, 수시 미충원 인원은 총 378명으로, 지난해(279명)보다 89명(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미충원이 크게 증가했다. 2026학년도 서·연·고 자연계열 수시 미충원 인원은 263명으로, 전년 128명 대비 135명(105.5%) 증가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인문계열 미충원 인원은 95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연도별 서·연·고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23학년도 318명 ▲2024학년도 337명 ▲2025학년도 279명 ▲2026학년도 368명으로, 202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자연계열 미충원 역시 ▲2023학년도 183명 ▲2024학년도 189명 ▲2025학년도 128명에서 2026학년도 263명으로 급증했다. 인문계열은 같은 기간 ▲132명 ▲140명 ▲143명에서 95명으로 크게 줄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인문계열에서 경영대학과 농경제사회학부 각 1명씩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자연계열에서는 19개 학과에서 총 61명이 이월됐다. 간호대학과 응용생물화학부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학계열 4명, 첨단융합학부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세대는 인문계열 15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현진 기자 lhj@



(가운데 오른쪽부터)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전춘성 진안군수, 전용태 전북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진안군민들이 지난 26일 진안문예체육관에서 양수발전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손팻말을 펼쳐보이고 있다. /동서발전

동서발전, 600MW 규모 진안양수발전소 추진

법군민 결의로 유치 의지 결집
에너지 전환 핵심 인프라 기대

한국동서발전이 전북 진안군민들과 함께 대규모 양수발전소 유치 의지를 공식화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26일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성공기원 법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진안군민과 함께 양수발전 유치 의지를 다졌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전북완주·진안·무주),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미래 에너지 비전을 공유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인사말에서 “양수발전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국가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라며 “진안군은 양수발전의 최적지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탁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수발전 사업은 특정 기업의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감대와 결속, 군민들의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번 결의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위기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으로 마지막 승부수

오늘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매각 자금으로 채권 변제 후
대형마트 대한 인수합병 추진

노동계 내부, 이념 전쟁 격화
‘규제완화’ vs ‘투기자본 규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고갈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홈플러스가 29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당장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유통업계 양대 노조가 정면 충돌하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알짜 사업부인 익스프레스를 떼어내 우선 매각하고, 확보된 자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뒤 남은 대형마트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한 차례 폐점이 예정됐다가 잠정 보류된 홈플러스 시흥점 모습.

/손종욱 기자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하루 전인 28일 일산점과 기양점을 포함한 5개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았다. 정치권 반대와 지역 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폐점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전기료 등 공과금 체납은 물론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해야 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막혀 있다.

경영진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만이 영업 중단을 막을 방법이라 보고 있다. 노조 측도 최근 한 발 물러서며 구조조정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97개 점포를 보유한 SSM 시장 3위 사업자로 점포 중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인수 시 쿠팡커머스 등 즉시배송에 용이해지는 만큼 여러 업체가 인수 후보로 꼽힌다. GS더프레시, 롯데슈퍼, 이마트에 브리데이 등 기존 업계 사업자들 간 매출 규모와 점포 수가 엇비슷한 상황에서 업계 3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할 경우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이커머스 입장에서선 도심 내 물류 거점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업자가 탐낼 알짜 매물이다.

문제는 이러한 쪼개기 매각이 홈플러스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캐시카우인 익스프레스가 빠져나간 뒤 남게 될 대형마트 본체는 경쟁력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6월에도 약 8000억원에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을 시도한 바 있지만 노조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홈플러스의 위기가 심화되자 노동계 내부에서도 사태의 책임과 해법을 둘러싼 이념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위기는 지난 13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규제가 만든 결과”라며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비대해지는 동안 오프라인 마트는 고사했다”고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 마트산 업노동조합은 즉각 반박하며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은 자산을 쪼개 팔며 이익만 챙긴 투기자본(MBK파트너스)”이라며 “노조가 사용자 논리를 대변해서는 안되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배를 탄 유통 노동자들이 ‘규제 탓’과 ‘투기자본 탓’으로 갈라져 다투는 형국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9개월째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예비입찰에서 인공기능 업체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사 스노마드가 이름을 올렸지만, 본 입찰에선 철수한 상황이다. 농협은 여러 차례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부채만 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직접 고용한 인원만 2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홈플러스 인수를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신세계스퀘어’서 화려한 연말 보내세요”

오는 31일 ‘카운트다운 쇼’ 진행
메인 스크린 역할로 영상 송출
K-팝, 불꽃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본점 본관 앞 신세계스퀘어에서 중구청이 주관하는 ‘2026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LIGHT NOW)’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동 일대를 빛의 도시로 조성하는 ‘명동스퀘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프로젝트 1호 초대형 사이니지인 신세계스퀘어는 이날 축제의 메인 스크린 역할을 맡아 화려한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서울중앙우체국 광장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분수광장 일대에서는 K팝 공연과 불꽃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신세계 측은 이번 행사가 시민과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뉴



신세계스퀘어가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본점 본관 앞 신세계스퀘어에서 중구청이 주관하는 2026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욕 타임스퀘어나 런던 파카딜리 서커스 못지않은 특별한 연말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점등식을 갖고 공식 운영을 시작한 신세계스퀘어는 연말 크리스마스 영상뿐만 아니라 K팝과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며 서울을 대표하는 디지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신세계의 헤리티지와 K콘텐츠가 어우러진 신세계스퀘어가 새해 카운트다운 축제의 중심이 되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빛의 향연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이마트, 신규 한우브랜드 3종 기획

새해 첫날 선봬… 10개 매장 우선 도입

이마트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더 깨끗한 목장한우’와 ‘구우(九牛)’, ‘결고운 순암소’ 등 신규 브랜드 3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브랜드는 이마트가 앱 이용자 5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됐다. 조사 결과 소비자는 청정 사육 환경(34%)과 높은 등급(29.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육질을 꼽았다.

‘더 깨끗한 목장한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농장 인증을 받은 곳에서 사육된 소를 엄선했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해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우’는 투썸(1++) 등급 중에서도 마블링 스코어 최상위인 넘버 나인(No.9)만 선별한 프리미엄 라인이다. ‘결고운 순암소’는 출산 경험이

없는 미경산 암소만 취급해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풍미를 강조했다.

신규 브랜드는 전국 10개 주요 매장에 우선 도입된다. ‘더 깨끗한 목장한우’ 4개점(평촌점, 죽전점, 용인점, 경기광주점), ‘구우’ 3개점(역삼점, 속초점, 김포한강점), ‘결고운 순암소’ 3개점(전주점, 평택점, 연수점)에서 선보인 후 이마트는 향후 운영 점포를 순차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론칭을 기념해 1월 1일부터 4일까지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10개 도입 점포에서 행사 카드로 결제 시 등심 1++(9) 등급을 정사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국거리와 불고기용 부위도 40% 저렴하게 내놓는다.

이마트 심창우 한우바이어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구체화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한우 상품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현대백 판교점, 개점 10년만에 연매출 2조 돌파

압도적인 명품 경쟁력 성과 견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개점 10년 4개월 만에 연매출 2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백화점 중 최단기간 기록이자 서울과 부산 이외 지역에서 나온 첫 성과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7일 기준 판교점의 누적 매출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출 1조7300억원보다 약 16% 성장한 수치다. 앞서 판교점은 2020년 개점 5년 4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넘기며 최단기간 ‘1조 클럽’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번 성과는 압도적인 명품 경쟁력이 견인했다. 판교점은 2015년 오픈 이후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등 핵심 브랜드를 유지하며 명품 라인업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 롤렉스와 고야드 등 최상위 명품 브랜드를 경기권 최초로 입점시키며 총 96개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힘입어 올해 럭셔리 위치와 주얼리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판교점은 신분당선과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권 고객을 대거 끌어들었다. 올해 판교점 매출 중 10km 이상 떨어진 광역 상권 고객 비중은 55.6%에 달했다. 연간 3000만 원 이상 구매하는 VIP 고객 중 원거리 거주 비중은 78.2%를 기록했

으며 이 중 서울 강남권 거주자가 33.1%를 차지했다.

현대백화점은 향후 판교점을 국내 럭셔리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내년 1월 루이비통 매장을 확장 리뉴얼하고 최상위 우수 고객을 위한 전용라운지를 신설한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등 주변 상권 변화에 맞춰 잠재 고객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대백화점 정지영 사장은 “판교점의 성과는 오프라인 유통이 단순 판매를 넘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리테일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럭셔리 백화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CU, 내달 7일 ‘주토피아 아이스바’ 선봬

주토피아 IP로 콘텐츠 경험 제공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영화 주토피아에 등장하는 ‘주토피아 아이스바’를 내달 7일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영화 주인공인 여우 캐릭터 ‘닉’이 극 중에서 판매하던 붉은색 발바닥 모양의 하드 아이스크림(팝시클)을 모티브로 했다.

제품은 딸기 퓨레 10%와 비타민C 100mg을 함유해 새콤달콤한 맛을 뽐내며 천연 색소를 사용해 영화 속 색깔을 자연스럽게 살렸다. 가격은 3800원이다.

BGF리테일 류진영 스낵식품팀 상품



CU가 주토피아에 등장하는 주토피아 아이스바를 선보인다.

/CU

기획자는 “최근 캐릭터 상품은 단순한 굿즈 소장을 넘어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IP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입힌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유통·M&A로 몸집 키운다”… K-뷰티, 브랜드 다변화 가속

단일 브랜드 의존 낮춰 다각화 전략
인디 브랜드 포트폴리오 등 확대
유통 연계 브랜드별 해외진출 강화
시장·소비층 세분화 대응 전략 ↑
해외 확장 겨냥한 사업 구조 재편

K뷰티 업계가 단일 브랜드 의존도를 낮추고 다수의 브랜드를 앞세운 다각화 전략으로 사업 전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2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구다이글로벌이 K뷰티 유통사에서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인디 브랜드를 인수합병하는 전략을 지속 펼쳐 사세를 확장했다.

구다이글로벌은 2016년 설립 후 2019년 조선미녀를 시작으로 2024년 티르티르, 크레이버코퍼레이션, 2025년 서린컴퍼니, 스킨푸드 등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현재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확보했고 브랜드 합산 매출은 지난해 1조원을 넘겼고 이 중 해외 매출 비중은 90% 이상에 달한다.

구다이글로벌은 각 브랜드 고유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크레이버코퍼레이션의 경우,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뿐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우마’를 운영하고 있다.



구다이글로벌의 크레이버코퍼레이션은 최근 글로벌 바이어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크레이버 데이’ 행사를 열었다. /크레이버코퍼레이션

우마는 글로벌 유통 기업 코스트코, 북미 대표 뷰티편집숍 알타뷰티 등과 협력하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구다이글로벌은 우마를 통해 인수 브랜드 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다이글로벌은 오는 2026년에는 국내 증권 시장에서 상장 절차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의 주요 증권사에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애경산업도 최근 들어 브랜드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전용 브랜드, 고급 기능성 브랜드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로에비타’는

비타민 기반 항노화 브랜드다.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피부 본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 애경산업은 차별화된 제형을 처방하는 등 혁신 기술력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

로에비타 ‘멜라이트 비타민 앰플 에센스’는 부스팅 에센스에 비타민C 앰플 볼을 직접 녹여 사용하는 브랜드 대표 제품이다. 비타민 효능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타민 미세 입자를 구현, 이상적인 온도 및 기술로 동결건조해 유효성분 함량과 안정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 9월 미국에서 공개한 ‘시그닉’은 글로벌 시장에서 2535 소비자를 정조준한다. 북미 지역 아마존, 틱톡숍 등에 공식 입점했고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현지 젊은 세대와 적극 교류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도 기존 주요 브랜드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신규 브랜드를 확산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에스트라는 국내외에서 K뷰티 대표 더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매출에서 에스트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5%에서 7%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최대 K뷰티 유통사 CJ올리브영에서 더마 부문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올해 2월 미국, 8월 중국 등으로 연달아 진출했다.

한울은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사계절과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울은 국내 지역 농가와 협업해 원재료를 수급하고 유자, 썬, 쌀, 밤 등과 같은 원료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재해석해 제품으로 선보인다. 인기 제품 유자 수면 팩, 토너패드 등을 미국 화장품숍 세포라 등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연령대와 소비층으로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단일 간판 브랜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브랜드별 타깃을 설정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꾀하는 등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배스킨라빈스

연말 사이즈 업 이벤트

‘31데이’ 사전 예약

SPC 배스킨라빈스가 연말을 달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31데이’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31데이’는 31일이 있는 달의 31일 하루 동안 매장에서 패밀리 사이즈 구매 시 하프갤론으로 사이즈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해피앱 또는 카카오톡 예약하기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하프갤론에 위에 꽂아 파티 연출을 할 수 있는 케이크초도 함께 증정돼 연말연시 파티를 더욱 분위기 있게 즐길 수 있다.

행사당일인 31일 카카오페이로 전액 결제 시 사이즈 업그레이드 혜택과 함께 2000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배스킨라빈스는 ‘31데이’ 누적 참여 횟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31 VIP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한다. 연간 총 7회 진행되는 ‘31데이’ 행사에 참여하고 해피앱 멤버십 바코드를 스캔하면 스탬프가 적립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고양이 구강건강 스낵 선포

동아제약 ‘브이 트릿’ 2종 출시

동아제약은 펫 헬스케어 브랜드 베플에서 반려묘 전용 구강관리 스낵 ‘브이 트릿’ 2종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베플 브이 트릿은 양치질이 쉽지 않은 고양이의 구강 관리를 위한 신제품이다.

고양이 구강 구조와 식습관을 반영한 3D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씹는 과정에서 치아와 잇몸을 다각도로 자극해 구강 혈액순환, 잇몸 부기 완화 등에 도움을 준다. 또 제품의 다공성 구조가 치아 표면에서 마찰을 높여 치석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참치맛, 연어맛 2종으로 구



베플 ‘브이 트릿’ 2종. /동아제약

성해 반려묘 기호를 충족한다. 동아제약 임직원 반려묘 대상으로 진행된 기호도 테스트에서 약 84%의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SK케미칼, AI신약 개발역량 결합 나선다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연구

SK케미칼은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와 신약 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현재 치료 옵션이 충분하지 않은 질환을 중심으로 ▲신약과제 도출 ▲공동연구 수행 ▲연구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연구 인력·기술·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신약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으로 자가면역질환과 섬유증 질환 치료제를 개발해 왔다. 최근 일부 과제가 국가 연구과제로 선정되거나 임상에 진입하는 등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약개발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자체 구축했다. 파이프라인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시스템으로 약물 모델링, 신약물질 합성, 스크리닝 및 비임상·임상 개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갖췄다.

SK케미칼은 항암, 섬유증 질환 등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개발과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가능성을 높인다.

이봉용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선도물질을 SK케미칼과 협력함으로써 개발 단계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베어리스타 콜드컵.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베어리스타 콜드컵’

완판 굿즈 재출시

스타벅스 코리아가 29일 ‘베어리스타 콜드컵’을 국내에 재출시한다.

베어리스타 콜드컵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단독 디자인해 지난 2023년 가을 프로모션에 선보인 한정 상품으로 프로모션 당시 기간 내 준비된 모든 수량이 완판되며 인기를 끈 바 있다.

이후 지난 11월 미국에서 동일 상품이 오픈런을 부를 정도로 화제를 모으며, 국내 고객들 사이에서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자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을 추가 제작해 재출시하기로 결정했다.

베어리스타 콜드컵은 스타벅스의 대표 마스코트인 베어리스타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591ml 용량의 컵에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비니 모양의 실리콘 뚜껑과 그린 스트로우가 세트 구성된 굿즈다.

특히 어떤 음료를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베어리스타의 모습을 인증하는 재미가 있어 인증샷 콘텐츠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리바로’ 국내 출시 20주년 맞아 성과 공개

JW중의제약 혈당 안전성 제시

JW중의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 (성분명: 피타바스타틴)’ 국내 출시 20주년을 맞아 20년 임상 데이터와 치료 성과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리바로는 지난 2005년 국내 최초 오리지널 피타바스타틴으로 발매됐고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강화 효과와 혈당 안전성을 갖췄다.

리바로는 한국인 1460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규 당뇨병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근거 기반 치료제

로서 전 세계 32개 국가 의약품설명서(SmPC)에 ‘당뇨병 위험 증가 징후 없음’이 공식 등록됐다. 다제 복용 환자에게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 안전성 역시 리바로의 주요 강점이다.

특히 JW중의제약은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며 리바로 핵심 효능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왔다.

‘리바로렛’의 경우, 임상 3상을 통해 한국인에 투여 8주에 LDL-C가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옴리클로’ 자동주사제 추가 획득

75·150mg 품목허가 확보

셀트리온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 자동주사제(오토인젝터, AI) 품목허가를 추가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품목허가는 옴리클로 자동주사제 75mg, 150mg 2종에 대한 것으로, 옴리클로는 오리지널 대비 확장된 제형 구성을 갖추게 됐다.

자동주사제형은 현재 국내 오리지널 제품에는 없는 옵션으로, 셀트리온은 환자의 자가 주사 투여 선택지를 확대해

치료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잦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등에서 자가 투여 선호도와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해 6월 국내에서 ‘퍼스트 무버’ 제품으로 옴리클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달 초 사전충전형주사제(프리필드시린지, PFS) 300mg 품목허가를 확보하면서 옴리클로 사전충전형주사제 제품군을 75mg, 150mg, 300mg 등 3가지 용량 모두에서 구축했다.

/이청하 기자

Cooperation 협동 • Collaboration 협력 • Connectedness 연결

다함께 있습니다. 성신에 있습니다!

생각과 생각을 잇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잇습니다.
다함께 이어진 세상, 성신에 있습니다.



바이오신약과학부
손민경

법학부
이하연

소비자산업학과
김하늘

소비자산업학과
추예솔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신입학 모집

정시모집 | 2025. 12. 29.(월) 11:00 ~ 12. 31.(수) 18:00

추가모집 | 2026. 2. 20.(금) 11:00 ~ 2. 25.(수) 14:00

입학상담 | 02-920-2000 홈페이지 | ipsi.sungshin.ac.kr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유한양행 '유한클로락스', 대한적십자 최고명예장

유한양행은 생활·위생 분야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한클로락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 '최고명예장' 전달식에서 (왼쪽부터) 김광호 유한클로락스 대표,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박종현 유한클로락스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세븐일레븐, '한국유통대상' 상생·협력부문 장관상

코리아세븐은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유통대상'에서 상생·협력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세븐일레븐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 만족까지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세븐일레븐



GS리테일, 정춘호 BU장 '동탄산업훈장' 수상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정춘호 BU장(한국편의점 산업협회장·사진)이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 동탄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BU장은 GS25 수장과 편의점산업협회장을 겸임하며 ▲K-편의점의 해외 영향력 확대 ▲동반성장 모델 구축 ▲사회 취약 계층 자립 지원 ▲환경경영 실천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GS리테일



광동제약, 서울 삼성역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광동제약은 최근 서울 삼성역 일대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 빈도가 높아지는 연말을 맞아 책임 있는 음주습관과 일상 속 숙취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경찰청 공식 마스크 트 포돌이·포순이가 함께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과 공감을 이끌었다. /광동제약



BNK부산은행, 다문화 청소년에 마음성장 지원

BNK부산은행은 최근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마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운(多溫)파라다이스'를 개최했다. (왼쪽부터)김용규 BNK부산은행 경영전략그룹장, 유진상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총지배인, 양승만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 나눔사업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이대목동병원 “희귀병, 희망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 미니콘서트 열여섯 가수 하하·별 부부 인연으로 마련 희귀병 이겨낸 막내딸 송이도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4일 이대목동병원에서 환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미니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니콘서트는 하모니카 연주자 백찬영, R&B듀오 설레게(향스, 심), 하하, 별 등 환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꾸며졌다. 또 가수 하하와 별 부부의 막내딸 송이가 건강해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번 무대는 송이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인연으로 마련됐다. 2022년 하하와 별 부부는 송이가



'크리스마스 이브 미니콘서트'에서 출연자들과 이대목동병원 최선아 소아청소년과 교수(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잘 걷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찾았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하던 중,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희귀 질환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받았

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갑자기 다리 힘이 빠지고 감각 이상이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이다.

KT&G, 올해의 최종사진가 선정

‘제16회 KT&G SKOPF’

하다원 작가 선정

KT&G는 지난 26일 잠재력 있는 한국사진가를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제16회 KT&G SKOPF (KT&G Sangsangmadang Korean Photographer's Fellowship)'에서 하다원 작가를 '올해의 최종사진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KT&G SKOPF는 신진 사진가를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7년간 이어져온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노순택, 김옥선, 김효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사진가 54명을 배출했다.

이번 '제16회 KT&G SKOPF'에서는 지난 6월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김찬훈, 하다원, 김민주 초원 3인을 '올해의 사진가'로 선발했으며 6개월간의 전문적인 사진 작업 멘토링과 그 작품 결과물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포트폴리오 발표를 진행해 하다원 작가를 '올해의 최종 사진가'로 선정했다.

하다원 작가는 가족에 대한 기억을



‘제16회 KT&G SKOPF’ 최종사진가로 선정된 하다원 작가. /KT&G

바탕으로 시대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통해 사진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돋보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 6월부터 2개월간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KT&G 문화공헌부 김정윤 전시담당 파트장은 "KT&G SKOPF는 상상마당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진작업의 완성도와 실험정신을 갖춘 신진작가를 발굴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김기문 회장, 도안초교 타임캡슐 봉입식

(중기중앙회)

김 회장 모교… 올해 개교 100주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회를 맡고 있는 도안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개교 100주년 타임캡슐 봉입식'을 지난 27일 개최했다.

2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충북 증평에 있는 도안초교는 김기문 회장의 모교로 1925년 일제강점기 당시 도안공립보통학교로 개교,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도안초교 운동장에서 열린 100주년 타임캡슐 봉입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우관문 과산증평교육장, 이정인 도안초등학교 교장, 한현태 도안초등학교 총동문화 회장 등이 참석했다.

타임캡슐에는 ▲도안초등학교 100년사▲학생 학교생활 물품(학용품, 레터, 그림 등) ▲도안초등학교 100주년 기원 방명록 ▲100주년 기념식 사진 및 물품 등이 담겼다. 캡슐은 도안초교 운동장에 매립했으며 50년 후인 2075년 12월27일 개봉한다.

이정인도안초교장은 "도안초등학교 100년의 기록은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중요한 노하우로, 초등학교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하하는 "여기 계신 환우 모두 꼭 쾌차해 일상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별은 "송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아팠던 기억만이 아니라 좋았던 기억도 함께 가질 수 있게 큰 도움 주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 덕분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펼쳐진 소중한 공연을 통해 많은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들이 즐거운 시간 속에서 희귀병을 이겨낸 송이를 보고 희망과 용기를 가졌다"며 "어떤 질병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왼쪽 세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인 도안초교 교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이 지난 27일 증평 증평 도안초교에서 열린 '개교 100주년 타임캡슐 봉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품, 레터, 그림 등) ▲도안초등학교 100주년 기원 방명록 ▲100주년 기념식 사진 및 물품 등이 담겼다. 캡슐은 도안초교 운동장에 매립했으며 50년 후인 2075년 12월27일 개봉한다.

이정인도안초교장은 "도안초등학교 100년의 기록은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중요한 노하우로, 초등학교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메인비즈협회 평생교육원’ 운영 본격화

AI·DX 확산 따른 재직자 교육

메인비즈협회가 회원사 재직자들을 위한 인공지능(AI) 등의 교육을 위해 '메인비즈협회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8일 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AI·DX 확산에 따라 전사적 디지털 역량이 기업 성과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재직자 대상 표준화된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평생교육원을 만들었다.

특히 제조·서비스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현장에서선 AI와 산업기술을 실무에 적용

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업무 효율 저하와 기술 적용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이번 평생교육원 설립을 통해 기업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상시 제공하고 회원사의 니즈를 반영해 교육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체계화해 산업현장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트랙은 AI 전문 활용, AI 마케팅, 공공조달 진출, 오픈마켓·해외쇼핑몰 진출, 경영·재무·법무·ESG 등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

◆KB금융 ◇전무승진 △ESG본부장 김경남 전무 △재무담당 나상록 전무 ◇상무승진 △비서실장 강승호 상무 △HR담당 주동욱 상무 ◇부문장 전적 △CIB마케팅부문장 김성현 부문장 (前 KB증권 대표이사)

부음

▲고상임(94세)씨 별세, 황희원·희인·희숙·희정씨 모친상, 김영환·이상훈(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유일환씨 빙모상=28일, 빈소 고려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111호,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대학로 NO.1 여성전용 화이트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헝키쇼

2025.11.28 ~ OPEN | 대학로 스타스테이지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핫한 공연
#겨울엔 헝키쇼에서 뜨겁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여자들만의 #연말파티

할인받고
헝키쇼 보러가기

NOL ticket 평점 10점 공연! 재관람율 100%

k9872**님

★★★★★

어머니께 찐 효도하고왔어요!!^^

와~ 진짜 그런 찐 행복한 표정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공연 끝나고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효도 다 했다!! ㅋㅋ 너무 고마워 ㅋㅋㅋㅋㅋㅋ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

arri***님

★★★★★

눈호강 제대로 하고온 날!!!!!!

어머니께 평생 잊지못할 기억을 남겨드렸다.
엄마랑 이런 뮤지컬 관촬나..? 싶었는데
안봤으면 죽을때까지 땅 치고 후회할 뻔!!!

queeno***님

★★★★★

스트레스 뺀!! 도파민 엔돌핀 뿜뿜

최근들어 이렇게 웃어본적이 언제인가 싶네요.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났어요. 관객참여형이라 더 좋았고
열정적인 춤사위는 아이돌가수의 춤을 보는듯 했어요.



카메라를 켜서 스캔해보세요!

거래소 파산하면 내 코인은?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흔히들 언급하는 코인은 이제 엄연한 투자 대상이 됐다. 그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두고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형사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그 이용자들은 ‘코인의 소유자’로서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있던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개인이 직접 전자지갑을 만들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거래소를 통해 쉽게 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

만일 이용자가 ‘코인의 소유자’라면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던 코인은 처분 대상이 되는 파산재단(채무자인 거래소의 재산)

에 귀속되지 않고 이용자가 코인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파산제도에서는 ‘환취권’이라고 한다. 반면 이용자가 소유자가 아닌 ‘가상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면 일단 코인 자체는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처분되고, 이용자는 채권자로서 채권의 일부를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소 이용자들은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 코인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왜 그런가? 보통 거래소의 약관에는 ‘회사가 가상자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종종 삽입돼 있고, 실제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이용자별로 그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 즉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 자산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코인 자체의 소유 및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관리,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키를 거래소 운영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이 분별관리되고 있다

면 법원 또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그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한다면 회생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산선고 시를 기준으로 계산했던 채권자들의 채권액 역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것이고, 그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액수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거래소가 가진 코인 가격도 덩달아 높아지므로 거래소의 영업 계속을 검토해 파산때보다는 지속적으

로 더 많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경제적 가치와 파급력에 비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판단은 아직 모든 면이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게 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용자가 갖는 지위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단을 면밀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체감 할 수 없는 ‘물가 안정’



기지 수첩
나 유 리
(금융부)

며칠 전 장을 보다가 파스타 소스 코너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8300원이던 제품이 1만3900원까지 올라 있었다. 계산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다. 단순한 인상이라고 보기엔 폭이 컸다. 체감으로는 가격이 ‘뛰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불과 몇 개월 사이 67% 상승. 숫자를 따지기 전에 당혹감이 먼저 들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11월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2.4%다. 지난 8월 1.7%에서 9월 2.1%로 오른 뒤, 두 달 연속 2.4% 수준을 유지했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2024년 7월(2.6%)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다.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체감은 더 분명해진다. 요리에 빠지지 않는 마늘 가격은 전년 대비 10.6% 올랐고, 각종 양념소스도 12.1% 상승했다. 달걀 가격 역시 7.3% 뛰었다. 외식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 끼니를 해결해도 물가 부담이 줄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가격 인상이 한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원가 부담을 이유로 인상된 가격은 어느새 ‘정상화’라는 이름을 달고 굳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르는 구간만 빠르게 지나가고, 내려오는 구간은 체감하기 어렵다.

최근 여러기관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최대 2.1% 까지 전망했다. 민간소비 회복이 그 근거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이 현실에서도 체감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소비의 중심

에 있는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지갑을 쉽게 열기는 어렵다.

특히 생활물가는 소비 심리를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성장률 전망 수치가 아무리 좋아져도,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한 체감 경기가 나아졌다고 느끼기는 힘들다. 소비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는 가격 신호가 먼저 필요하다.

결국 성장과 소비 회복을 말하기 전에 짚어야 할 것은 생활물가다. 파스타 소스 가격표 앞에서 멈춰 서게 만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민간소비 회복은 전망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체감되지 않는 성장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생활물가 관리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29일 (음 11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집에서 음식쓰레기를 발취하여 즐겁다. 48년생 마음이 울적할 땐 슬퍼하라. 60년생 신세를 졌던 사람이 고맙게 신세를 갚으려 온다. 72년생 오늘 회의는 뜻대로 찬성표가 많을 터이니 겸손. 84년생 건강은 재물만큼 축복.



37년생 다정다감(多情多感)도 병. 49년생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61년생 상대의 단점을 캐내지 마라. 73년생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한다. 85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상반되게 배신한다.



38년생 인생에 휴식이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50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말고 나가라. 62년생 자칫자식으로 고집 피우지 않도록. 74년생 닥쳐올 재난을 미리 경계하자. 86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내일의 평온으로 가는 길이 된다.



39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 51년생 천재라도 노력이 있어야 이어진다. 63년생 음주와 먹는 것에 유의하는 날. 75년생 이제 시작된 사회생활이니 미래를 재점검하자. 87년생 건조하여 가려움증이 생기니 마음도 우물.



40년생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 52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4년생 배려를 하지 않으면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76년생 풍요롭기를 원하면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터. 8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41년생 축(畜)시에 운전 주의. 53년생 일이 성과를 내니 명예가 높아진다. 65년생 다툼이 일어나니 미리 자중하여 구설 주의. 77년생 불확실한 미래지만 절음은 가치가 엄청나다. 89년생 이성에게 바라다보면 가정불화가 발생.



42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저하지 인생사 두고 도는 것. 54년생 학문의 길은 다양하나 공든 탑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66년생 이사계획은 다음 날에. 78년생 아직보다는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90년생 여의주가 손에 들어오니 좋은 일.



43년생 삼재이니 재물 관련 일은 지장 기도를 해보는 것도. 55년생 태양은 우리 곁에 있다. 67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 79년생 앞날을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보자. 91년생 가족의 협조로 집안일이 잘 풀린다.



44년생 집안에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만들어지는 경사날. 56년생 동료와의 우정이 여러모로 도움 된다. 68년생 사랑이 찾아와 가슴이 벅차다. 80년생 구슬을 꿰듯이 시작하는 시점을 잘 찾자. 92년생 마음은 불편해도 재물은 들어온다.



45년생 줄이 길어 기다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57년생 작은 결함으로 일을 망치지 주의. 69년생 물이 깊어와 고기도 모이는 법. 81년생 오후에 음주가 낀 망신살에 주의. 93년생 반려견은 기쁨을 같이하니 청결하고 건강하게 키우자.



46년생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 58년생 변동이 있어도 초지일관해야. 70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82년생 언덕이 변하여 골짜기가 되듯 변하고 변하는 게 인생사이니. 94년생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47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가 있다. 59년생 말천이 많으니 장사도 큰 이익. 71년생 지치가 쉬운 날이나 의외의 곳에서 소득이 생긴다. 83년생 학식이 풍부해 직장에서 늘 대우를 받는다. 95년생 사람이던 동식물이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김상회의四季 생명의 물

물은 생명이다.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인체의 70%가 수분인 것은 그만큼 물이 신진대사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임을 말해 준다. 신비하게도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도 물이 70%를 차지한다. 5대양 6대주가 지구의 기본 구성인데, 이 오대양에 있는 바닷물 뿐과 함께 강이나 호수 등등의 물의 양이 지구 질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몸이 그 삶의 터전인 지구를 닮아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체가 소우주임을 확인한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진작에 통찰하여 하늘과 해와 달, 지수화풍의 작용과 조화를 인간의 운명과 삶에 적용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를 계발해왔다, 그것이 주역이고 음양오행론이다. 무엇보다 물이 어머니의 자궁과 난자를 수(水) 오행으로 정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생명의 정수가 되는 아버지의 정은 화(火) 오행으로 정의하는데, 화가 수를 만나면 화극수 하여 물리적으로는 반대 성향일 것 같지만 극은 극끼리 통한다고 하듯 정반합 작용으로 서로가 합하여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일(日)로서 태양이요, 어머니는 월(月)로서 달이니, 해의 뜨거운 에너지와 달의 서늘한 기운이 키우고 품어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것이다. 반대되는 기운이 서로 음으로 양으로 작용하며 온전한 소우주가 탄생하여 우주의 구성원이 된다. 기독교 종파의 하나인 침례교에서는 물로 세례를 준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예 강물 앞은 쪽에서 사체가 세례자의 머리를 물에 담갔다가 들게 한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듯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도 물을 통해 태어나듯 정신적으로도 물은 생명이자 태어남의 상징이다. 그러니 물을 성수로 하여 몸에 뿌리면 영혼 정화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스도쿠 3650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8		1
					6		
3			1	8			
9	2	1				3	
		4				2	5
			6	1			2
			8				
4		6	9				3

8	9	2	8	2	9	8	1	6
9	1	2	8	6	9	2	7	8
8	6	8	2	1	7	9	9	2
2	7	9	6	8	1	2	8	9
6	2	9	7	2	8	1	9	8
8	8	1	9	9	2	7	6	2
1	2	8	9	8	6	9	2	7
9	8	7	2	9	2	6	8	1
2	9	6	1	7	8	9	2	9

지역 이모저모

산청군

내년부터 장애인회관 운영

산청군이 총 79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장애인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준공된 장애인회관에는 현재 지역 내 장애인 단체와 시설이 차례대로 입주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각종 장애인 서비스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회관 건립에는 특별교부세 2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 경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12억원, 군비 32억원 등이 투입됐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김해시

최고 인구시책 ‘김해아이가’

김해시는 올해 최고의 인구 시책으로 ‘김해아이가(家)’ 플랫폼을 선정했다.

김해아이가는 임신·출산·양육·청년 분야 인구 정책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종합 정보 플랫폼이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 1000여 건을 한곳에 모아 조회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양육·돌봄시설 지도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갖춰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안동~영덕 도로개량 준공

경북 안동과 영덕을 잇는 국도 34호선 도로 21.9km 구간이 31일 오전 11시에 개통된다.

국도 34호선 도로 개량 사업은 지난 2015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7년에 착공했다. 공사는 총 9년의 기간 동안 21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안동~영덕 간 국도 이용 시 10분이 단축되고 영덕 구간은 5분여의 시간이 단축된다.

군은 관내 내륙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의 교통이 개선됨으로써 물류의 흐름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덕(경북)=김준환 기자 kih9@

영광군

성산근린공원 38년만에 첫삽

전남 영광군민의 숙원이었던 성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38년 만에 속도를 내게 됐다.

영광군은 실시설계를 마친 성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 공사 시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성산근린공원은 영광읍 중앙초등학교 뒤편 성산 일원에 들어서는 생활권공원으로 문화·휴식·체육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대표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영광(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로봇이 한강 순찰하고, 장애인 제도 불편 덜고

서울시, 생활·경제·관광 등 161건 규제철폐

올 하반기, 규제 4건 추가 개선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장애인 특공 온라인 신청 가능해져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제도개선도

서울시가 지난해 시민 생활은 물론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철폐하며 시민 일상과 산업현장의 불편을 줄인 데 이어, 2026년도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을 이어간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개선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식 개선 등 4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한다. 이번 개선 과정에는 규제 철폐안 158호부터 161호에 해당한다.

우선 시는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



지난 10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뉴시스

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행 구간과 시

간, 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

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는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단기거주시설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 교육도 개선된다.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연간 8시간 교육 중 최대 4시간까지 비대면 교육이 가능해진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과 해지를 내년 상반기부터는 8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부담 낮춰

금융취약계층 대상 연 1% 대출
최장 10년으로 상환기간 확대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착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환 부담을 낮추고 사전·사후 통합관리까지 수행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으로 전환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도는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략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낸 경기극저신

용대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민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준비했다.

대출 조건을 보면 기존에는 최대 300만원을 5년 만기 상환해야 했는데,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사례자 관리도 강화한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대상자들이 단순히 몇백만원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삶을 재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울산시, AI·에너지 등 핵심 신산업 키운다

10년간 산업시설용지 513.6만㎡ 확보

울산시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에 나섰다.

시는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 협의를 거쳐 2035년까지 10년간 산업시설용지 513만 6000㎡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역 내 산업입지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AI 및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 산업 기반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계획 수립으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성안약사산업단지, U-밸리, 수소융합밸리 등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자동차·조선 등 친환경 이동 수단 산업, 수소·이차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화학 산업 대전환, AI 관련 산업 등 산업도시 재도약기에 접어들어 울산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수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부울경 경제동맹, 광역교통망 구축 등 성과

고속도로 건설, 친환경선박 개발 등 교통·산업·생활 가시적 성과 달성

경남도는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해 온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올해 다수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 국비대응단은 49개 사업에서 총 925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국회를 공동 방문해 2026년도 국비 15개 사업 307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 거제~마산 도로 건설 등이 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핵심 성과가 이어졌다. 올해 7월 경제동맹 1호 핵심사업인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울산·양산·김해를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부울경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한층 가까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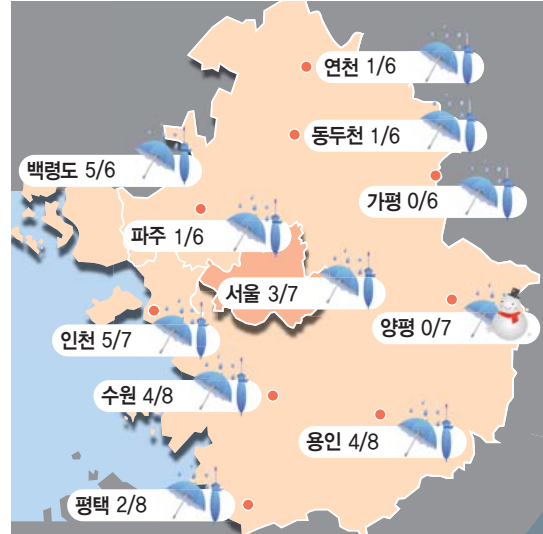
산업·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도 활발하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으로 부울경이 인공지능(AI) 인재를 공동 육성하고 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 허브 공동기업 설명회(IR)에서는 6개 기업이 총 5억 3000만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민 체감형 협력 사업도 확대됐다. 지난 9월 19일부터 김해~부산·양산 간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연계 환승요금 무료화가 시행됐으며, 부울경 먹거리위원회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부울경 거점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문을 열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6 | 해질 / 17:2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기시다 “한일 관계, 위안부 합의 토대 위 전진”
…소녀상엔 “합의 따른 대응”
▲美 출발 젤렌스키 “영토·원전 레드라인…안보 보장 있어야 투표 가능”
/사진 뉴시스

▲대만 북동부 해역서 규모 7.0 지진…TSMC 등 피해 없어
▲로건 폴, 5300만 달러에 산 ‘피카츄 일러스트레이트’ 경매 나온다

▲캐나다 카니총리, 젤렌스키와 회담후 우크라이나 추가 재정지원 약속
▲日, 내년 7월 출국세 3배 인상…여행객 부담 커질 것



홀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마지막 승부수
L1



Life

K-뷰티
유통·M&A로
몸집 키운다
L2



“일상에서 쓰인 역사… 한인들 삶에서 다양성의 가치 찾았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재미교포 고교생
제러미 안

“역사는 전쟁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뽕집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야기꾼’이라고 소개하는 한 소년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산타마르가리타에 있는 산타마르가리타 가톨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재미교포 제러미 영우 안 군. 그는 흔히 주인공이 아닌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주목한다. 가려진 일상의 삶을 조명하는 그의 시선은, 한인 이민자들의 일상 이야기를 담은 ‘더 코리아나 아메리칸(The Korean American)’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평범함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했는지, 지금부터 안 군의 시선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 더 코리아나 아메리칸, 유색인종의 이야기를 담다

먼저, 더 코리아나 아메리칸은 평범한 한인 미국인들의 일상을 담은 10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다. 군인부터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한인 사회 속 인물들의 이야기다.

안 군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사실 목차에서 드러난다. 독자들은 군인부터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한인 미국인들은 결코, 그리고 과거에도 단일한 모습의 집단이었던 적이 없으며 이 책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지닌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헌사”라고 소개했다.

책을 집필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깨달음 중 하나는 제가 유색인종에 대해 얼마나 조금 알고 있었는지였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깨달음은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근본적인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안 군은 “스스로를 어느 정도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역사가 백인의 관



‘더 코리아나 아메리칸(The Korean American)’ 책을 집필한 고등학생 제러미 영우 안 군.

한인 미국인 평범한 일상 그린 책 출간 군인·시의원 등 10명의 이야기 담아 평범한 삶에 주목… 일상 속 역사 조명 백인 관점에서 쓰인 역사, 시선 바꿔야

점에서 쓰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역사 속에는 훌륭한 백인들도 많지만, 일제 강점기 한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창호, 시민권 운동가이자 작가였던 제임스 볼드윈, 이민자·노동자·여성의 법적 보호를 위해 싸운 돌로레스 우에르타 등 유색인종이었던 위대한 인물들도 존재한다”며 “불완전한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살아온 이들, 지금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 모두에게 큰 결례다”라고 강조했다.

◆ 평범함 속에서 다양성의 가치로

평범함의 힘은 다양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안 군은 “제가 이 책에서 의도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 인물과 유명 인물을 본능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모두 역사적 인물”이라며 “우리는 매일 살아가며 역사를 만들고,



제러미 안 군(두번째줄 왼쪽 첫번째)과 RAD 캠프 참가자들이 ‘찬드니의 RAD 캠프 어드벤처’ 책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형성하고, 변화시키고, 영향 미친다. 그 사실을 기념하고 싶었다. 역사는 전쟁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뽕집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고 했다.

책을 집필하며 마주한 도전에 대해 안 군은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가 마주했던 가장 큰 도전은 이 기록을 서사적인 방식으로 써 내려가는 일이었다”며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대부분은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의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최대한 많은 세부 묘사를 담고 싶었다. 수십 년 전의 기억 속에서 감각적인 디테일을 끌어내기 위해 이 남성과 여성들에게 깊이 회상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사회 모두의 목소리를 담다

평범과 비평범의 구분을 넘어, 사회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안 군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소녀 찬드니의 이야기를 그린 ‘찬드니의 RAD 캠프 어드벤처(Chandni's RAD Camp Adventure)’ 출간으로도 이어졌다.

안 군은 “이 책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소녀 찬드니(Chandni)가 RAD 캠프에서 보낸 시간을 그린 이야기라며” “RAD 캠프는 신경다양성 커뮤니티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 숙박형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두 권의 책을 발간한 안 군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 군은 “두 책의 주제는 서로 다르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다”며 “바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는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안 군은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양극화된 현실 문

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봤다.

안 군은 “정치적 분열이 정치적 양극화로, 그리고 그 양극화가 다시 정치적 폭력으로까지 썩어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특정한 목소리들은 억눌려 왔다. 우리가 정치적 양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카드(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모두의 목소리 기록하는 것이 목표 다운증후군 소녀 찬드니 그린 책 출간 한국·미국 연결하는 이야기 쓰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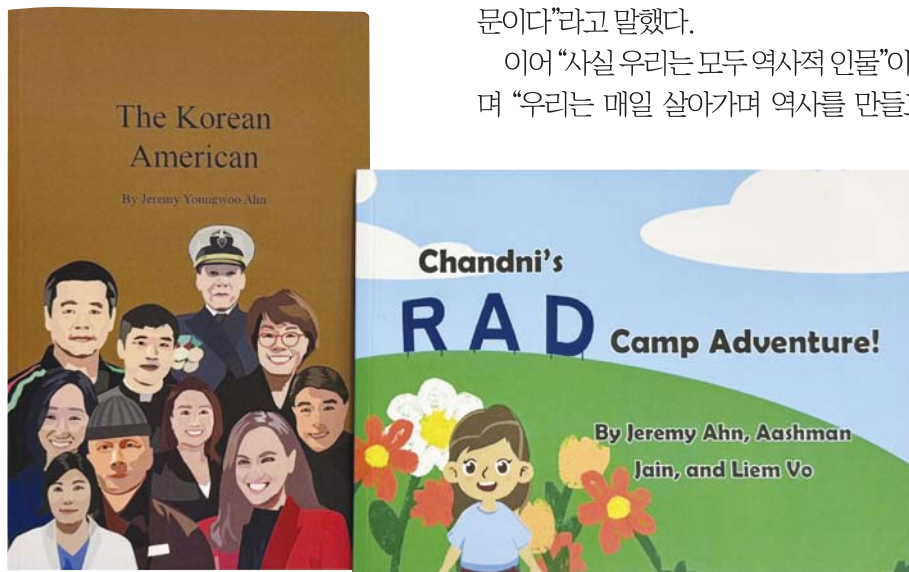
◆ 한국과 미국을 잇는 연결고리

제러미 안 군은 한국인이자 미국인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꿈꾸고 있다.

안 군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콘텐츠, 그리고 한국 제품들에 깊이 매료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한국계 캐나다인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들고 한국계 미국인이 ‘미나리’를 연출하는 것처럼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더 코리아나 아메리칸’이라는 책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과도 닮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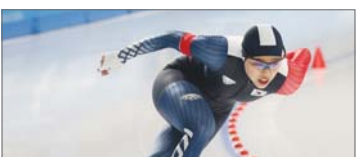
그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역사와 외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글로 쓰며 그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고 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제러미 안 군의 ‘더 코리아나 아메리칸’, ‘찬드니의 RAD 캠프 어드벤처’ 책 이미지.

메트로 한줄뉴스



▲서울시, 프로 연고구단에 시립체육시설 명칭사 용권 판단

▲빙속 이나현, 김민선 제치고 스프린트 선수권 전 종목 1위 석권

/사진 뉴스스

▲‘삼성과 2년 20억원’ 강민호, 역대 최초 4번째 FA 계약…“왕조 삼성 만들겠다”

▲F1 노리스, 중국 신화통신 선정 ‘올해의 스포츠 스타 1위’

▲셀틱 양현준, 스코틀랜드 리그서 시즌 첫 골…4-2 역전승

▲‘황희찬 침묵’ 울버햄튼, 리버풀에 1-2 패배…개막 18경기 무승